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67-01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
(보건·복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 계획 지역평가 보고서(보건·복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 총괄, 제1장 집필

이중섭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제2~5장, 제7~10장 집필

백옥미 | 군산대학교 교수 | 제2~5장, 제7~10장 집필

이성재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제2~5장, 제7~10장 집필

이주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5장, 제7~10장 집필

신진우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 제2~5장, 제7~10장 집필

조근식 |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6장 집필

강종원 |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제6장 집필

권오영 |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6장 집필

차 례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목적 및 평가 대상 4
- 3. 평가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취약 농가 인력 지원

-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9
- 2. 지역 평가 결과 10

제3장 농촌 보육 여건 개선

- 1.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 시설) 지원 19
- 2.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31

제4장 청소년 시설 확충

-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41
- 2. 지역 평가 결과 45
- 3. 시사점 60

제5장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63
- 2. 지역 평가 결과 64

제6장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 1. 다문화 가족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73
- 2.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81

제7장 농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87
2. 지역 평가 결과 89

제8장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07
2. 지역 평가 결과 109
3. 시사점 114

제9장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17
2. 지역 평가 결과 120
3. 시사점 128

제10장 농촌 건강 장수 마을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131
2. 지역 평가 결과 133
3. 시사점 149

표 차례

제1장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3
<표 1-2> 지역평가 대상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4
<표 1-3>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	5
<표 1-4> 평가 내용 및 방법	6
<표 1-5>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7

제2장

<표 2-1> 취약 농가 인력 지원 2016년 추진 방향	9
<표 2-2> 양적 평가 기준	11
<표 2-3>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실적	12
<표 2-4>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계획(2018년)	12
<표 2-5>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실적	13
<표 2-6> 여성 농업인 생생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실적	14
<표 2-7>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가맹점 현황	15
<표 2-8>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계획(2018년)	16
<표 2-9> 전북 여성 농가 및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	18
<표 2-10> 세부 지표별 평가 내용	18

제3장

<표 3-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추진현황	20
<표 3-2>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비 비목별 세부 기준	21
<표 3-3> 성과 지표의 측정	22
<표 3-4>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23
<표 3-5>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23
<표 3-6> 이동식 놀이 교실의 사업 실적 및 지역 범위	24
<표 3-7> 이동식 놀이 교실의 연도별 실적 비교(2016년, 2017년)	27

<표 3-8> 부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횟수	28
<표 3-9> 사업추진체계	32
<표 3-10> 성과 지표의 측정	33
<표 3-11>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34
<표 3-12>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34
<표 3-13> 시설장 및 돌봄이 현황	35
<표 3-14> 전라북도 주말 돌봄방 운영 현황	37

제4장

<표 4-1> 2017년 예산 및 지원 계획 변동 내역	42
<표 4-2> 청소년수련 현황 및 시설 개요	42
<표 4-3>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현황	44
<표 4-4> 성과 지표의 측정	45
<표 4-5>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의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46
<표 4-6>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46
<표 4-7>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47
<표 4-8>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 현황(2017년)	48
<표 4-9> 청소년 시설 유형별 설치 수 대비 전북 설치 현황	48
<표 4-10> 전국과 전북 청소년 시설 직원 확보 현황	49
<표 4-11> 전국과 전북 청소년 지도사 확보 현황	50
<표 4-12>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현황	51
<표 4-1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현황	55
<표 4-14>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58
<표 4-15> 전북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58
<표 4-16> 전북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적	59
<표 4-17> 전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 현황	60

제5장

<표 5-1>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2016년 추진 방향	64
<표 5-2> 양적 평가 기준	65

<표 5-3> 여성농어업인센터 고충 상담 세부 사업 내용	66
<표 5-4> 여성농어업인센터 영유아 보육 사업 세부 내용	67
<표 5-5> 세부 지표별 평가 내용	71

제6장

<표 6-1> 평창군 결혼이민자 현황(2016년)	75
<표 6-2> 방문교육 사업 중 한국어 교육 실적(2016년)	75
<표 6-3> 방문교육사업 중 부모 교육 실적(2016년)	76
<표 6-4>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실적(2016년)	83

제7장

<표 7-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선정 결과	88
<표 7-2>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91
<표 7-3>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91
<표 7-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현황	92
<표 7-5> 전라북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 현황	92
<표 7-6>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추진 상황(2017년 10월 기준) ..	94
<표 7-7>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 지대 발굴 체계: 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 발굴대상자	98
<표 7-8>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 지대 발굴 체계: 신규 발굴 대상자 ..	99
<표 7-9> 완주군 이서면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기관	100
<표 7-10> 최근 2년 간 주민 주도 복지 활동(2015년~2016년간)	102
<표 7-11> 나눔냉장고 운영 절차	104
<표 7-12> 투입분야 평가	105
<표 7-13> 실적 및 성과분야 평가	105

제8장

<표 8-1>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사업 내용	108
<표 8-2> 농·수협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	109
<표 8-3> 양질 및 질적 평가 기준	110

<표 8-4>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주요 내용	111
<표 8-5> 장수 사진 촬영 사업 주요 내용	112
<표 8-6> 의료 지원 및 장수 사진 지원 서비스 연계 기관 및 이용자 현황 ..	113
<표 8-7> 문화 예술 및 기타 사업 연계 기관과 이용자 현황	114
<표 8-8> 각 지표별 세부 평가 요약	116

제9장

<표 9-1>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추진실적	118
<표 9-2> 농촌 공동체 회사의 유형	119
<표 9-3> 농촌 공동체 회사의 유형	119
<표 9-4>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성과 목표	120
<표 9-5>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1
<표 9-6> 완두콩 농촌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2
<표 9-7>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3
<표 9-8> 에버팜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5
<표 9-9> 에버팜 농촌 공동체 회사 운영 방향	126
<표 9-10> 세부 평가	129

제10장

<표 10-1>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135
<표 10-2> 전라북도 연도별 추진 현황	136
<표 10-3> 2016년 총 사업비	136
<표 10-4> 2016년 영역별 사업비 집행 결과	137
<표 10-5> 2016년 교육 및 마을 회의 추진 실적	138
<표 10-6> 2016년 사업 홍보 실적	138
<표 10-7> 사업 참여 현황	139
<표 10-8> 분과별 모임 활동 현황	139
<표 10-9> 교육 및 마을회의 추진 실적	140
<표 10-10> 영역별 프로그램 추진실적	140
<표 10-11> 2016년 마을별 사업 참여 현황	142

<표 10-12> 분과별 모임 활동 현황	143
<표 10-13> 4개 영역별 활동 실적: 정읍시 매당마을	144
<표 10-14> 남원 하주마을	144
<표 10-15> 김제 궁지마을	145
<표 10-16> 완주군 대북마을	145
<표 10-17> 무주 서면마을	146
<표 10-18> 무주 외당마을	146
<표 10-19> 순창군 세룡마을	147
<표 10-20> 순창군 평남마을	147
<표 10-21> 투입-실적-성과 지표 및 성과 평가 결과	150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2

제3장

<그림 3-1> 이동식 놀이 교실의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 25

<그림 3-2> 고산농협 주말 돌봄방 36

제4장

<그림 4-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설치 현황 44

<그림 4-2>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현황 51

<그림 4-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활동 52

<그림 4-4> 완주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모습 53

<그림 4-5>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모임 54

제6장

<그림 6-1> 방문교육 서비스 투입-산출-결과 지표(2016년) 77

<그림 6-2>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투입-산출-결과 지표(2016년) 83

제7장

<그림 7-1> 성과 지표의 측정(안) 90

<그림 7-2> 이서면 복지 전달 체계 구성 97

제9장

<그림 9-1>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2

<그림 9-2> 이웃린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127

제10장

<그림 10-1> 성과 지표의 측정(안) 134
<그림 10-2> 완주군 대북마을의 공동체 활동 14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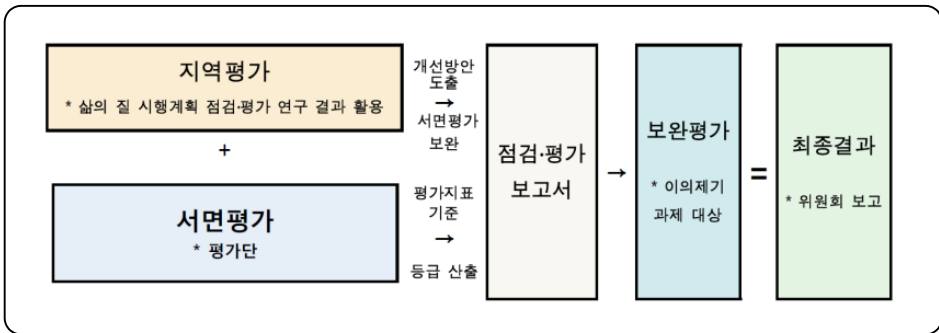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약칭)이 제정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약칭)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맞추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약칭)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2014년에 수립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책과 환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평가 과정을 진행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과제를 연도별로 나눠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평가 과정과 문제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지역평가와 서면평가로 나누어 수행된다.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삶의 질 위원회가 취합하고,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면평가 결과는 다음해 6월경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평가에서는 단순한 실적 집계보다는 더 진전된 수준의 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하는 추진실적 자료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며,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시행계획 점검평가 2회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정책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계획	1-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문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 목표의 적합성
	1-2 추진 방식의 합리성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 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2-1 집행 및 예산 확보	예산 집행 실적 및 차년도 예산 확보
	2-2 일정관리	추진 일정 준수
3. 성과	3-1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3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4 기타 정책효과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 삶의 질 향상 계획 지역평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면평가와는 별도로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인 지역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풍부하면서도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정책사업 현장에 대한 직접 관찰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6년에 추진한 지역평가에서는 처음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2. 연구 목적 및 평가 대상

■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위한 지역평가 과정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서면평가를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교훈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는 각 시도 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정책과제별로 분담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2017년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보건·복지 부문에 속한 9개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개선책과 환류방안 등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2〉 지역평가 대상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부문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명	점검·평가 대상
보건·복지 (9개)	• 대상그룹별 복지 서비스 강화	1-3-1-1. 취약농가 인력 지원	○
		1-3-2-2. 농촌 보육 여건 개선	○
		1-3-2-6. 청소년 시설 확충	○
		1-3-3-2.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
		1-3-4-1.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
	• 농어촌 복지전달체계 구축	1-4-2-1. 농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1-4-2-2.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
		1-4-3-1. 사회서비스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1-4-3-2. 농촌 건강 장수 마을	○

3. 평가 내용 및 방법

■ 명확한 평가 목적 설정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에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교훈(lesson)’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점검·평가에서는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와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미흡했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점검·평가에서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표 1-3〉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

구분	내용
책임성(accountability)	투입한 재정,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가 적절한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가치가 있는 정책인가?
교훈(lesson)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사례들에서 우수한(또는 부진한) 성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인가?
등급 부여(grading)	여러 정책 실행 단위들 중에 어느 곳에 인센티브/페널티를 줄 것인가?

■ 평가내용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과제별 목적, 추진현황,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을 정리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 과정, 추진 실적, 정책만족도와 파급효과, 문제점

6 서론

및 애로사항 등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다. 정책성과는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정책의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현장에서 평가대상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환류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표 1-4〉 평가 내용 및 방법

구분	평가 내용	방법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	- 세부과제별 목적, 추진현황,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	- 문헌 및 자료 검토
추진실태	- 추진 과정 - 추진 실적 - 정책만족도 및 파급효과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자체 자료 검토 - 핵심 주체별 면담 조사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수혜주민 등) - 전문가 자문 등
성과	-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	-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 체계 활용
시사점	- 추진절차 및 체계의 문제점 - 정책 개선 방안 등	

■ 평가의 관점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에서는 정책의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라는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점점·평가하려 시도하였다.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도입하여 점점·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각 시도 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정에 최소한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투입은 해당 사업 각각에 할당되는 자원 또는 예산과 관련되는 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 종류와 수량이 투입에 해당

한다. 실적은 정책 사업을 통해 직접 실행된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매출 등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효과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사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혹은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행위나 역량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고용 증가량 등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급효과(impact)’는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수준을 넘어 지역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표 1-5〉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지표의 단계별 구분	설명	예(例)
투입 (in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 각각에 할당되는 자원 또는 예산과 관련된 지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 종류와 수량
실적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사업을 통해 직접 실행된 활동을 측정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효과(매출 등)
결과 (resul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측정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행위나 역량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 	사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고용 증가량
파급효과 (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수준을 넘어 지역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을 측정 해당 지역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 정책사업의 간접적 효과를 고려 	지역의 고용변화, 농업생산성 증가
기준 자료 (bas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 	고용률, 소득

취약 농가 인력 지원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은 사고·질병 발생 농가, 고령·취약 농가의 영농 작업 및 가사 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과 취약 농가의 기초 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데 있다. 2006년부터 추진되었고, 2015년까지 약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영농 도우미 지원 사업’은 2016년에만 총 17천 가구의 71억4,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행복 나눔이 지원 사업’은 15,000가구에 총 14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국고 지원 70%, 자부담 등 30%로 운영된다.

한편, 2016년도에는 영세 고령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영농 도우미 및 행복 나눔이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1〉 취약 농가 인력 지원 2016년 추진 방향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16.1월	
2/4분기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 2016년 상반기 현장점검	‘16.6월	
3/4분기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16.7월	
4/4분기	◦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 지원 ◦ 2016년 하반기 현장점검	‘16.10월	

10 취약 농가 인력 지원

- 사업 기간 : 2006년 ~ 계속
- 총 사업비 : 해당 없음('15년까지 기투자액 : 600억 원)
- 사업 내용
 - 영농 도우미 지원 및 행복 나눔이(기존 가사 도우미 명칭 변경) 지원
- 사업 규모
 - 영농 도우미 지원 인원(2016): 17,000가구, 71억4,000만 원
 - 행복 나눔이 지원 인원(2016): 15,000가구, 14억4,900만 원
- 지원 내용
 - 영농 도우미 지원: 국고 70%, 자부담 30%
 - 행복 나눔이 지원: 국고 70%, 농협 지원 30%
- 사업 시행 주체: 농협중앙회
- 지원 기관: 지역농협
- 사업 추진 체계: 세부사업시행지침(농협)→농업인 신청→도우미 선정 및 파견(지역농협)→입금 신청(도우미)→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농협)
- 법적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2. 지역 평가 결과¹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사고 및 질병 발생 농가의 영농 대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과 기초 생활 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했다. 영농 도우미 활용 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지원 인력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했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여성의 출산 전후에 노동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 규모(인력)와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했다.

¹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인력)와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의 성격상 별도의 조직 구성, 전달 체계에서의 특이 사항이 없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3개 사업별 목표를 검토하여 사업량(지원 인원)과 예산 투입 현황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였다.

〈표 2-2〉 양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양적 평가	◦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실적	◦ 목표 대비 영농 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인원 및 금액	정량
	◦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실적	◦ 목표 대비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인원 및 금액	정량
	◦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실적	◦ 목표 대비 여성 농업인 생생 카드 지원 인원 및 금액	정량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라북도는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사업을 2011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연평균 1,514명을 지원했고, 2017년까지 총 10,601명을 지원하였다.

지원 단가는 1인 최대 600백만 원(10일×60,000원/일)이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로 구성되어 있다.

12 취약 농가 인력 지원

〈표 2-3〉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0,601	6,022,296	4,215,898	333,129	777,298	695,970
2017	1,600	960,000	672,000	43,200	100,800	144,000
2016	1,600	960,000	672,000	43,200	100,800	144,000
2015	1,600	960,000	672,000	43,200	100,800	144,000
2014	1,269	761,400	532,980	34,263	79,947	114,210
2013	1,664	998,401	698,880	44,928	104,832	149,760
2012	1,454	704,790	493,648	63,343	147,799	-
2011	1,414	677,705	474,390	60,995	142,320	-

2017년까지 도비 3억3,312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60억2,229만6,000원 투입되었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1,600명, 지원 금액 9억6,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2017년 실제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은 목표치와 같은 1,600명, 9억6,000만 원이다. 2018년도는 2017년도 규모와 동일한 1,600명을 대상으로 9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 2-4〉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계획(2018년)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600	960,000	672,000	43,200	100,800	144,000
전주시	44	26,400	18,480	1,188	2,772	3,960
군산시	33	19,800	13,860	891	2,079	2,970
익산시	47	28,200	19,740	1,269	2,961	4,230
정읍시	151	90,600	63,420	4,077	9,513	13,590
남원시	76	45,600	31,920	2,052	4,788	6,840
김제시	88	52,800	36,960	2,376	5,544	7,920
완주군	185	111,000	77,700	4,995	11,655	16,650
진안군	38	22,800	15,960	1,026	2,394	3,420
무주군	90	54,000	37,800	2,430	5,670	8,100
장수군	391	234,600	164,220	10,557	24,633	35,190
임실군	70	42,000	29,400	1,890	4,410	6,300
순창군	159	95,400	66,780	4,293	10,017	14,310
고창군	97	58,200	40,740	2,619	6,111	8,730
부안군	131	78,600	55,020	3,537	8,253	11,790

전라북도는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사업을 2000년도에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정부 시행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5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연평균 339명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총 6,109명을 지원하였다.

지원 단가는 1인 최대 420만 원(70일×60,000원/일)이며, 사업비 재원은 도비 25%, 시·군비 65%,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까지 도비 24억7,442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7,618만5,000원 투입하였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실적을 고려한 지원 인원 200명, 지원 금액 7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17년 실제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은 목표치와 같은 200명, 7억 원이다.

〈표 2-5〉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사군비	자담
계	6,109	10,076,185	370,982	2,474,425	6,084,989	1,145,789
2017	200	700,000		175,000	455,000	70,000
2016	198	475,200		118,800	308,880	47,520
2015	300	720,000		180,000	468,000	72,000
2014	277	664,800		166,200	432,120	66,480
2013	305	732,000		183,000	475,800	73,200
2012	427	1,024,800		256,200	666,120	102,480
2011	423	934,480		233,620	607,412	93,448
2010	443	885,840		221,460	575,796	88,584
2009	457	658,335		164,584	427,918	65,833
2008	549	769,259		192,316	500,018	76,925
2007	574	781,363		195,595	508,541	77,227
2006	440	502,870		125,719	326,864	50,287
2005	359	313,410		62,502	188,226	62,682
2004	314	270,150	108,060	54,030	54,030	54,030
2003	298	216,649	86,659	43,330	43,330	43,330
2002	296	234,672	93,868	46,935	46,934	46,935
2001	171	137,835	55,134	55,134		27,567
2000	78	54,522	27,261			27,261

14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전라북도는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선6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삼락농정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도에 14,054명을 지원하였다. 지원 단가는 1인 12만 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도비 25%, 시·군비 58%, 자부담 17%로 구성하였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9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7년도 목표는 2016년 실적의 125%인 약 14,0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2017년 실제 지원 인원은 15,000여명이다.

〈표 2-6〉 여성 농업인 생생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 실적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2017	15,000	1,800,000	-	450,000	1,044,000	306,000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전라북도는 민선 6기 핵심 정책으로 삼락농정(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다시찾는 농촌)을 추진하고 있다. 삼락농정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려고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 노동에서 비롯되는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통계청 자료(2013년)에 따르면, 여성 농업인이 가진 시급한 해결 과제가 과중한 노동 부담 경감(31.3%)과 복지 시설 확충 및 복지 제도 확대(28.7%)였다.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한 시설의 확충보다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16년)이 대상자다. 2017년에는 연령 대상 범위를 20

세~65세로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는 영농 종사는 다음과 같다. 경종은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이며, 축산·수산은 경종 5ha 소득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 농어업인(문화부 문화바우처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타 분야 사업자등록자, 전업적 직업 보유자, 도시지역 거주자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건강 관리, 문화·학습 활동 등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이다. 도비(25%), 시·군비(58%), 자부담(17%)을 포함해 1인당 연 120,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생생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은 문화·여가활동, 스포츠·미용 등 일상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업종이며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관광 여행사, 관광 기념품점, 스포츠 용품, 레저 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레포츠클럽, 영화관, 공연장·전시장·경기장, 사진관, 서점, 화원, 펜션 및 민박, 요가, 의료기기 및 용품, 찜질방·목욕탕·사우나, 미용실, 피부미용원, 안경점, 화장품점, 미용재료 등이다.

〈표 2-7〉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가맹점 현황

구분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가맹점(개)	14,127	6,160	2,236	2,286	780	598	336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350	81	411	72	61	106	273	377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시·군별 가맹점을 확보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했다. 오프라인 서점이 없는 지역에선 온라인 서점(알라딘)을 개설하여 생활 속의 문화향유 증진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수혜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려고 홈페이지, 전북생생 TV(일일 뉴스 및 홍보 영상), 유튜브, 삼락농정 홍보 리플릿, 지역신문, 여성농업인단체, 부녀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용자수는 2016년 11,347명에서 2017년 15,000명으로 증가했다.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6 취약 농가 인력 지원

2017년엔 25세~34세 여성 농업인의 15%에게 지원했고, 20세~24세의 이주 여성 등 기혼 여성에 대한 특례 지원도 진행했다. 241명을 추가 지원하여 여성 청년농과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2018년은 지원 대상 범위 및 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여성 농업인 중 생생카드를 지원 받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표 2-8〉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계획(2018년)

단위 : 천 원

구분	사업량(명)	계	국비	도비	사군비	자담
계	200	840,000		210,000	546,000	84,000
전주시	1	4,200		1,050	2,730	420
군산시	2	8,400		2,100	5,460	840
익산시	8	33,600		8,400	21,840	3,360
정읍시	20	84,000		21,000	54,600	8,400
남원시	19	79,800		19,950	51,870	7,980
김제시	7	29,400		7,350	19,110	2,940
완주군	10	42,000		10,500	27,300	4,200
진안군	15	63,000		15,750	40,950	6,300
무주군	11	46,200		11,550	30,030	4,620
장수군	25	105,000		26,250	68,250	10,500
임실군	12	50,400		12,600	32,760	5,040
순창군	19	79,800		19,950	51,870	7,980
고창군	38	159,600		39,900	103,740	15,960
부안군	13	54,600		13,650	35,490	5,460

지원 대상 범위는 기존 20세~65세에서 20세~70세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 또한 15,000명에서 20,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도비를 4억 5,000만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하고, 총 사업비를 18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33% 증액할 계획이다.

2017년에 여성 농업인 54,825명 중 27.4%가 혜택을 받았고, 2018년엔 28.0%가 혜택을 받을 계획이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정부는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으로 영농 도우미 및 행복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 지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에서 사고 및 질병 발생 농가, 출산 농가, 여성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취약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과 기초 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생바우처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문화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시·군별 여성 농업인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농 도우미 농가 부담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과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 전체 농가 98,930가구 규모를 고려하면, 약 1.6%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여성의 출산 전후에 노동력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의 여성 농가수가 지속해서 감소(2000년 약 20만명→'14년 128,000명)하고, 같은 기간에 전북의 출산율도 감소(2000년 1.58명→2014년 1.33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원 금액을 확대(2000년 699,000원/인당→2010년 2,00만원/인당→2017년 350만 원/인)해서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어촌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전라북도 시·군의 여성농가 수는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순인 반면, 출산 여성 농가 지원 사업 규모는 고창, 정읍, 남원 순이다. 시·군의 추진 의지에 따라 지원 대상 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 농가 및 출산 여성 농가가 많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8 취약 농가 인력 지원

〈표 2-9〉 전북 여성 농가 및 여성 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

단위 : 명

구분	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전체농업인	224,661	17,900	17,943	28,862	22,651	18,925
여성농업인	114,049	9,171	8,745	13,965	11,613	9,9718
바우처지원	200	1	2	8	20	19
원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16,847	8,697	8,333	9,601	9,758	10,485	18,533
8,306	4,547	4,471	4,883	5,126	5,608	9,411
10	15	11	25	12	19	38

〈표 2-10〉 세부 지표별 평가 내용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양적 평가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 2017년 9억6,000만 원을 투입하여 1,600명 지원(1인 최대 600만 원) 전라북도 농가수 고려 시 정책 수혜 대상의 점진적인 확대 필요 	정량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지역 여성의 출산 전후 부족한 노동력 확보에 기여 2017년 7억 원을 투입하여 200명 지원(1인 최대 420만 원)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한 정책수혜자의 체감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정량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등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에 기여 2017년 18억 원을 투입하여 15,000명 지원(1인 최대 12만 원) 여성농가 및 출산여성 농가가 많은 사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정량

1.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소규모 국공립 보육 시설) 지원

1.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읍·면 지역에 설치·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국공립 보육 시설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0~만 5세)를 수용한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보육 시설이 없거나 접근성이 열악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 가정별로 방문하여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 하는 등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2년까지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다 2013년부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7년까지 37개소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이중 6개소는 사업 지원 인원 기준(3~20인)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운영 지원이 중단되었고, 1개소는 2017년에 새롭게 개원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30개소의 센터(인천 1개소, 강원 2, 충북 1, 충남 3, 경북 10, 경남 1, 전남 12)가 운영되며, 2016년까지 총 119억 2

20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천만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군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수요를 조사하며, 시·군 지자체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5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다.

〈표 3-1〉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국비 ¹⁾	지방비	기 타 (자부담포함)	합계	신규 설치 (운영 개소)
2009~2012년	910	273	-	1,183	29(23)
2013년	4,810	1,732	-	6,542	3(26)
2014년	1,482	456	-	1,938	3(29)
2015년	1,152	319	-	1,471	1(30)
2016년 집행	649	137	-	786	1(30)
합계	1,183	10,150	-	11,920	37(30)

주: 1) 센터 신규 설치 시설비는 국비 70%, 지자체 30% 매칭이며, 운영비는 국비 100% 지원

2) 국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예산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시설비, 센터 운영비, 이동식놀이교실 운영비를 포함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는 의 사업 예산은 사업비는 시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시설비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리모델링·신축비, 기자재·장비 구입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차량 구입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다. 1개소 당 최대 1억 5,20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까지 지원되며, 수용하는 영유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운영비는 1개소 당 최대 1,370만 원을 지급한다. 보육 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의 비목으로 구성된다. 1개소 당 평균적으로 약 1,100만 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비로 100%를 지원받는다.

〈표 3-2〉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비 비목별 세부 기준

단위: 원

구분	비목	세부 기준
시설비	리모델링신축비	- 81,725,000(3~15인 시설), 108,966,000(16~20) - 지원 단가: 1,270,000원/㎡
	기자재장비 구입비	- 29,000,000(3~15인), 22,000,000(16~20)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 20,000,000 - 지원 단가: 606,060원/㎡
	차량구입비	- 22,000,000 - 15인승 이하 승합차 1대
운영비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100,000/월 이내 - 1인 기준, 1달에 15일 이상 근무 - 시설 당 최대 4명 - 학원수강, 여학, 취미 관련 지출내역 증빙 후 지급
	보육교사 교통비	- 100,000/월 - 1인 기준, 1달에 15일 이상 근무 - 시설 당 최대 3명 - 정액 지급
	교재교구비	- 500,000~1,000,000(연 2회) - 500,000(영유아 수 3~5명), 700,000(6~10명), 1,000,000(11~20명)
	프로그램개발비	- 2,100,000/년 이내 - 외부강사 초빙 시 수당 및 부대비용 -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냉난방비	- 200,000/월 이내, - 연 최대 1,200,000(냉방: 7~9월, 난방: 12~2월)

이동식 놀이 교실은 개소 당 1억3,700만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한다.

1.2. 지역 평가 결과²

전라북도의 이동식놀이교실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운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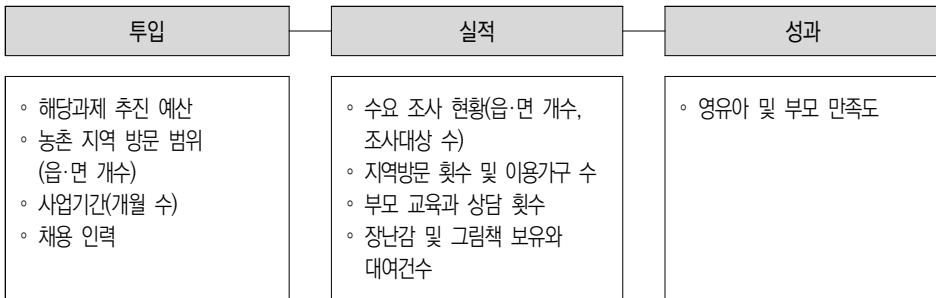
²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중 이동식놀이교실 사업을 실시한 전북육아종합지원 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있다. 따라서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내의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팀이 2017 년도에 추진한 사업 내용 및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려고 성과 지표를 투입 지표, 실적 지표, 성과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최종 성과 지표는 군(읍·면) 지역의 이동식 놀이교실 이용자(영유아 및 부모)의 만족도 등으로 평가했다.

성과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접근성이 불리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복지 체감도 및 서비스 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했다.

〈표 3-3〉 성과 지표의 측정



성과 지표 중 양적 평가는 주로 계량적 통계 산출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양적 평가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기간(개월 수), 채용 인력, 해당과제 추진 예산, 농촌 지역 방문 범위(읍·면 개수), 수요 현황, 지역별 이용 가구, 장난감 및 도서대여 건수, 지역 행사 횟수, 지역별 지원 횟수 등이다.

질적 평가는 이동식 놀이 교실이 방문하는 읍·면 지역에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 만족도를 평가한다. 7개 군 43개 읍·면 지역에서 이동식 놀이 교실 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한다.

〈표 3-4〉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제 추진 예산, 농촌 지역 방문 범위(읍·면 개수), 사업기간(개월 수), 채용 인력 ◦ 수요자 현황(읍면 개수, 조사 대상자 수) ◦ 지역·월별 방문 횟수 및 이용 가구 수 ◦ 장난감 및 그림책 보유 현황 대여 건수 ◦ 부모교육 및 전문가 상담 횟수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부모 만족도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투입 지표는 해당 과제 추진 예산, 사업 추진 개월 수, 그리고 인력채용 수 등 정량 지표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실적 지표는 투입에 따른 정량 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 조사 현황, 지역별 방문 횟수 및 이용 가구 수, 영유아에 지원한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건수, 부모 교육 및 상담 횟수 등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는 이동식 놀이 교실이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해 부모 만족도를 측정했다.

〈표 3-5〉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해당 과제 추진 예산	해당 과제 예산	정량
	1-2. 지역 방문 범위	이동식 놀이교실사업이 농촌 지역 방문한 범위(읍·면 개수)	정량
	1-3. 사업 기간 및 채용 인력 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기간 및 진행을 위한 인력 수	정량
실적	2-1. 수요 조사 현황	읍·면단위 별 개수	정량
		수요 조사대상자 수	정량
	2-1. 지역 방문 횟수 및 이용가구 수	지역별 방문 횟수	정량
		지역별 이용 가구 현황	정량
	2-3. 장난감 및 그림책 보유와 대여	장난감 및 그림책 보유 현황	정량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건수	정량
	2-4. 교육과 상담 횟수	부모 교육 횟수	정량
		개별 및 집단 전문가 상담 횟수	정량
성과	3-1. 영유아 및 부모 만족도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수혜자(영유아 및 부모)의 만족도	정성

1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라북도 내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지역은 6개 시, 8개 군, 241개 읍·면·동 중 66개 읍·면 지역으로 미설치율은 27.4%이다. 동 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내 8개 군 지역 중에서 임실군(75.0%), 진안군(63.6%), 장수군(57.1%), 고창군(42.8) 순으로 어린이집 미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이동식 놀이 교실은 7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3개 읍·면 지역을 방문하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지역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 중 약 65%를 담당한다. 이동식 놀이 교실이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7년 이동식 놀이 교실 총 예산은 1억3,700만 원(차량 임대료, 유류비,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비, 세척비 및 수리비 등)이며, 사업 전담 인력은 총 3명(사업총괄 교사 1명, 프로그램 전담교사 2명)이고, 사업 기간은 10개월(2월~12월)로 가정별로 3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다. 사업 지원비가 2016년 총 1억5200만 원에서 2017년 1억3,7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오히려 2017년 사업 지역은 2016년 보다 5개가 증가하여 43개 읍·면으로 확대되었다. 대신, 인력 1인을 감축하였으며 가정별 방문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변경하였다.

〈표 3-6〉 이동식 놀이 교실의 사업 실적 및 지역 범위

구분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8개 군 43개 읍·면
예산	1억5,200만 원	1억3,700만 원	
사업 인력	4명	3명	
사업 기간	10개월	10개월	
사업 범위 지역	7개 군, 38개 면	7개 군, 43개 읍·면	
운영 방법	2주 주기로 가정 방문	3주 주기로 가정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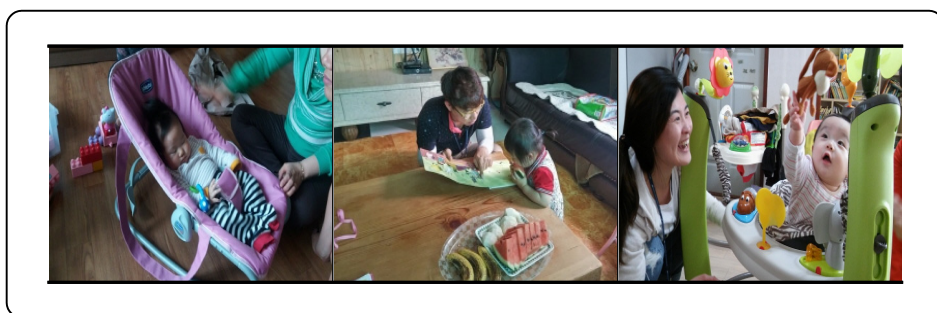
1.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는 3명(총괄교사 1명, 프로그램 전담교사 2명)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 교재 교구 지원 사업 등이다.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은 영유아 발달 단계별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프로그램(주제 중심으로 연령별 발달에 맞는 패키지 구성), 영유아 발달을 돕는 감각 자극형 교재·교구 지원, 영유아 발달을 돕는 장난감 및 그림책 통한 상호 작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이용자 및 회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별 활동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발달 단계별 개별 활동 프로그램(월령별 발달에 맞는 활동준비), 발달별 교재·교구 지원, 놀이 상호작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 서비스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아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며 양육자에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더 나은 양육 문화를 조성한다.

〈그림 3-1〉 이동식 놀이 교실의 장난감 및 그림책 대여 사업



이 외에 부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부모 교육은 영유아 가정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지역으로 찾아가 진행한다. 지역 및 계층 간 육아 지원 서비스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양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의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팀 방문 및 사례 조사

농촌 지역 보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중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려고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는 2012년부터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는 농촌 지역 보육 여건 개선하려고 이동식 놀이 교실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 단계별 개별 활동 프로그램과 'FUNFUN 행복 더함 가족 캠프', '카페 활동을 통한 가정 연계 활동³'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과 지역 행사(가족어울림운동회 연간 총 5회, 400명 대상), 홍보(현수막 게시, 리플릿, 가가호호 전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 FUNFUN 행복 더함 가족 캠프
 - ： 농촌 지역에 영유아와 부모의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총 2차에 걸쳐 가족 캠프를 진행함(물놀이, 실내 문화공연, 부모-자녀체험활동, 체험부스별 활동, 육아&보육 상담 등)
- 카페 활동을 통한 가정 연계 활동⁴
 - ： 1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장난감 및 그림책 제공, 부모를 위한 육아 지원, 부모 교육 자료 제공, 활동 상호작용 및 피드백, 이동식 놀이 교실과 부모 간 긍정적 유대 관계 확립(자율적 의사소통 및 공감대 형성)

방문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01일
14:00~16:00
- 장소 :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 참석 : 최은주센터장
문철영 총괄교사



³ (<http://cafe.naver.com/magiccar2768084>)

⁴ (<http://cafe.naver.com/magiccar2768084>)

1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실적 지표는 수요 조사 현황이다. 2017년 읍·면 지역 총 43개를 방문하여, 2016년(38개 면) 보다 5곳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6년 628명에서 2017년 219명으로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실적 지표는 지역 방문 횟수 및 이용 가구 수 현황이다. 2017년 10월 기준 지역 총 179회 방문하고, 173가구가 이용하였다. 2017년 이용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8가구 증가하였고, 지역별 방문 횟수는 저년 대비 45회 감소하였다. 앞으로 11월과 12월의 사업 수행까지 고려한다면(월 평균 25회) 2016년 실적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7〉 이동식 놀이 교실의 연도별 실적 비교(2016년, 2017년)

단위: 명, 횟수, 가구

지역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수요 조사 현황		방문횟수 및 이용가구현황		수요 조사 현황		방문횟수 및 이용가구현황	
	지역	명	방문 횟수	이용 가구	지역	명	방문 횟수	이용 가구
무주	부남면, 무풍면	80	21	21	무풍면, 설천면, 무주읍	38	21	36
순창	인계면, 적성면, 금과면	43	20	17	인계면, 순창읍, 적성면, 유등면	19	20	16
부안	주산면, 동진면, 백산면, 보안면, 상서면, 위도면	92	41	31	동진면, 백산면, 상서면, 보안면, 주산면, 줄포면, 부안읍, 하서면, 행안면	26	19	22
임실	운암면, 신평면, 신덕면, 성수면, 청웅면, 심계면, 지사면, 강진면, 덕치면	91	43	18	덕치면, 신덕면, 신평면, 운암면, 심계면, 지사면, 임실읍	48	38	31
장수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번안면, 장계면	144	23	13	천천면, 계북면, 번안면, 장계면, 장수읍	24	29	23
고창	심원면, 부안면, 아산면, 성내면, 신림면, 성송면	73	42	31	신림면, 성내면, 심원면, 아산면, 성송면, 고창읍, 상하면	29	21	19
진안	주천면, 안천면, 상전면, 백운면, 동향면, 정천면, 용담면	105	34	24	동향면, 백운면, 안천면, 정천면, 주천면, 상전면, 부귀면, 진안읍	35	31	26
계	38개 면	628	224	155	43개 읍·면	219	179	173

세 번째 실적 지표는 장난감 및 그림책 보유 현황이다. 2017년 10월 기준 장난감 보유량은 614점으로 전년 대비 19점이 증가한 반면, 그림책 보유량은 2,111권으로 전년 대비 70권이 감소했다.

다음으로 2016년 장난감 대여 건수는 1,930건, 그림책 대여 건수는 1,931건인 반면, 2017년 장난감 대여는 1,642건, 그림책 대여는 1,534건으로 나타났다.⁵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및 전문가 상담 횟수이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 전문가 상담은 12회(개별상담 8회, 집단상담 4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11월과 12월에 부모교육을 7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2016년 실적, 즉 부모교육 10회와 전문가 상담 16회(개별 상담 11회, 집단 상담 5회)와 비교하면, 2017년 부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횟수는 2016년 실적에 비해 저조하다. 2017년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8〉 부모 교육 및 전문가 상담 횟수

구 분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7. 10. 31)
장난감 보유현황		595점	614점
그림책 보유현황		2,181권	2,111권(분실 5권, 폐기 35권)
장난감 대여 건수		1,930건	1,642건
그림책 대여 건수		1,931건	1,534건
부모 교육		10회	7회(11, 12월 향후 계획)
전문가 상담	개별 상담	11회	8회
	집단 상담	5회	4회
	계	16회	12회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의 부모 만족도를 2016년 결과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정리하였다. 조금 더 늘려주고 장난감을 직접 선택하기를 희망하는

⁵ 평균적으로 매월 장난감 대여는 234점, 그림책 대여는 219점이란 점을 고려하고 11월과 12월에 추진될 사업량을 예측하면 2017년 장난감대여는 약 2,110건, 그림책 대여는 약 1,972건으로 전년에 비해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역 행사 및 가족 캠프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았다. 놀이 상호 작용 프로그램은 많은 부모들이 만족하였으며, 활동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다양한 장난감을 경험할 수 있고, 아이와 놀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아이의 개성에 맞는 놀이 수업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 답했다.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사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1.3. 시사점

영유아 인구 통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수요 조사가 어렵다. 각 군(읍·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가 주민등록인구 통계와 다르다. 즉 군(읍·면)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된 영유아 중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 수요를 조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영유아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채용 인력의 고용 불안정 및 높은 이직률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동식 놀이 교실은 매년 공모-심사-선정 절차로 이루어지는 단일 사업으로 채용된 보육 교사 고용이 불안하고 이직률이 높다. 매년 새로 채용된 보육 교사와 영유아 사이에 상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확장·발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북 육아 종합 지원 센터는 자체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지속사업으로 보육 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장·발전시키기를 희망했다.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받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동식 놀이 교실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예산이 투입되는 데,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사업 선정 혹은 지속 여부 결정을 늦출 경우 예산이 없어 상반기 몇 개월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특히 1월과 2월은 다음해 사업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한기이므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고, 도서와 장난감 수요가 높아 일이 많아질 시

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지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정확한 예산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예산이 없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육 수요가 많은 농한기에 영유아 및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대로의 명확한 일정에 따른 사업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1년 단위 사업이 아닌 3년 이상의 지속사업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배정하여, 장기 계획 하에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촌(읍·면) 지역 담당 공무원이 관심을 두어야 한다. 농촌 지역 공무원은 해당 사업에 관심이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될까봐 부담을 앓고 있어, 실무진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에 농촌 지역 담당 공무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한다.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 중 이동식 놀이 교실은 매년 새롭게 실시되는 단일 사업으로 2017년 예산은 2016년 예산에 비해 약 1,500만 원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사업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으나, 이동해야 하는 읍·면은 5곳이 추가되는 등 노동 환경이 악화되었고, 지역 당 방문 주기도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길어지는 등 사업 대상자에 제공해야 할 보육 서비스도 저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31일 기준 지역별 방문 횟수 및 이용 가구 현황 성과는 2016년 동일 기간 성과보다 향상되었다.

기타 문제로 수요 조사 시 실제 지역 내 거주하는 영유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일이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로 장난감과 그림책을 확보하지 못해 대여 서비스가 개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동식 놀이 교실 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이지만 농촌 지역에 제공하는 보육 지원 서비스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향후 단일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어 중·장기 계획 하에 사업이 확장되어야 한다.

2.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2.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본 사업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 사업기간: 2014~계속(201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
- 총사업비: 해당 없음(15년까지 기투자액: 4억7,900만 원)
- 사업규모: 개소 당 최대 국비 3,200만 원 이내(국고정액) 17개소, 2억 4,500만 원
- 지원 조건: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 회계) 국비 100%
 - 시설 개보수비: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 이내 지원(기자재, 장비 포함 : 유아용 변기 보조 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영비: 인건비(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교재·교구비, 기타 운영비 등 개소 당 1,200만 원 이내 지원
- 사업 시행 주체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지자체, 농협중앙회, 여성농업인센터 협의회: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희망재단에 수요 조사 결과 제출
 - 돌봄방 운영기관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설 및 운영·관리, 아이 돌보미 서비스 기관에 돌보미 파견 신청
 - 아이 돌보미 파견 서비스 기관 : 농번기 주말 돌봄방과 연계, 아이돌보미 파견 계획 수립 및 파견 관리
- 지원 대상
 - 농촌(읍, 면)지역 중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 보육 수요가 있으나, 시설

32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을 이용하는 데 어려운 지역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시설 운영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한 능력을 갖춘 법인과 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지원 방법: 지자체 농정·복지 부서(보육), 농협 복지 부서, 여성농업인센터 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 지원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마을 공동체 등 대상으로 추천 시 선정 기준(안)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
- 운영 기간 : 농번기 기간인 4개월(4월~11월 기간 중)
 - 4월 초에서 11월 말 사이 농번기로 일이 바쁜 농촌 특성을 반영하여 4개월 이내 선택 지원
 -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자 선정 후 4월 이전에 완료하여 4월 이후 부터 사업을 개시하도록 추진

〈표 3-9〉 사업추진체계

돌봄방 희망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및 돌봄방 운영 기관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신청	현지 점검 및 사업 대상자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 점검	돌봄방 운영 및 점검

-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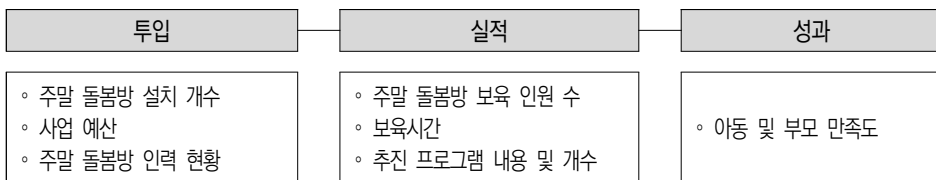
2017년도에는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 지속 추진하였다. 즉,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운영비 19개소 지원하였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농번기 보육 공백 및 영농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 주말 돌봄방 지원 개소수 : 2017년 2개소
 - 2015년 목표 15개(실적 15개), 2016년 목표 17개(실적 17개소)
- 측정산식(측정 방법)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 지원 개소수
- 목표치 산출근거 : 농번기 주말 돌봄방 운영비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고려하여 2017년 19개소로 목표치 설정

2.2. 지역 평가 결과⁶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전라북도 농촌(읍·면) 지역에서 농번기에 주말 돌봄방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7곳 (지역 농협, 여성농업인센터 등)이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의 점검 및 평가 분석을 위해 성과 지표는 투입 지표, 실적 지표, 성과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되, 최종 성과 지표는 군(읍·면) 지역의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이용하는 부모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며,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이용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 서비스 체감도 및 서비스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표 3-10〉 성과 지표의 측정



성과 지표 중 양적 평가는 주로 통계를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양적 평가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 개수, 사업

⁶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중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34 농촌 보육 여건 개선

예산, 주말 돌봄방 적정 인력 배치(운영 인력 수 및 전문성), 주말 돌봄방 돌봄 수혜 아동 수, 추진 프로그램 수 등을 평가하였다. 성과 지표 중 질적 평가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은 아동 및 부모 대상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표 3-11〉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농촌 지역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 개수(19개 중 7개) 사업예산, 주말 돌봄방 인력 현황(운영인력 수) 주말 돌봄방 보육 인원 수, 돌봄방이 돌본 총 시간 수 추진 프로그램 내용 및 개수
질적 평가	주말 돌봄방 사업 이용 아동 및 부모 만족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투입 지표는 주말 돌봄방 설치 개수, 해당과제 추진 예산, 주말 돌봄방 운영 인력 수 등 정량 지표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실적 지표는 투입에 따른 정량 실적을 중심으로 주말 돌봄방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은 아동의 수, 주말 돌봄방에서 4개월 동안 돌봄 총 보육 시간, 아동 대상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 횟수 등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성과 지표는 농번기 주말 돌봄방 보육 서비스에 대한 아동 및 부모 만족도를 활용한다.

〈표 3-12〉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주말 돌봄방 설치	농촌 지역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 개수	정량
	1-2. 사업예산 지원	주말 돌봄방 사업예산 지원	정량
	1-3. 주말 돌봄방 인력 현황	주말 돌봄방 운영 인력 수	정량
실적	2-1. 주말 돌봄방 보육인원 수	주말 돌봄방에서 돌본 아동 수	정량
	2-2. 보육시간	주말 돌봄방이 돌봄을 한 시간	정량
	2-3. 추진 프로그램 내용 및 개수	주말 돌봄방의 운영을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	정량
평가	3-1. 아동 및 부모 만족도	주말 돌봄방 사업 이용 아동 및 부모 만족도	정성

2.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북 지역에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2017년 11월 현재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국에 운영 중인 농번기 주말 돌봄방 19곳 중 약 37%를 차지하고, 특히 부안군 내 2개소(부안·부안백산 여성농업인센터)가 설치되어 전국 대비 전북 지역 농번기 주말 돌봄방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7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의 총 사업 예산은 1,236만 원(인건비,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등)으로 2016년 사업 예산보다 36만 원이 증가했다.

주말 돌봄방 사업 운영 인력은 시설장 1명, 돌보미 2명, 취사지원 1명으로 총 4명이고, 지역과 돌봄 아동의 인원수에 따라 5명(고창여성농업인센터)과 6명(부안백산 여성농업인센터)인 곳도 있다.

〈표 3-13〉 시설장 및 돌보미 현황

구분	전국	전북
개소수	19개	7개
구분	2016년	2017년
지원예산	1,200만 원	1,236만 원

2.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고산 농협 주말 돌봄방은 총 4명(시설장 1명, 돌보미 2명, 취사부 1명)이 종사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1차는 2017년 05월 10일 ~ 7월 9일이고, 2차는 2017년 08월 26일 ~ 10월 29일이었다. 총 보육 시간이 256시간이다. 보육 인원은 17명으로 2세 2명, 3세 1명, 4세 2명, 5세 4명, 6세 2명, 7세 4명, 8세 1명, 9세 1명이다. 1,236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인건비 896만 원, 교재·교구비 5만 원, 급·간식비 192만 원, 기타 운영비 98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돌봄 연령은 만 3-5세 아동을 포함하여 돌봄 아동의 5세 이상 형제와 자매이며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 지역 3곳(고산면, 경천면, 비봉면)은 등하원 차량을 운영하였다. 5세 미만 아동을 위해 수면실을 제공하고,

초등학생 아동을 위해 학습 지원하였다. 실내 활동으로 블록 놀이, 색종이, 구연 동화 듣기, 학습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실외 활동으로 산책하기, 뛰어놀기, 체험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혹은 7시까지 돌보았다.

〈그림 3-2〉 고산농협 주말 돌봄방



완주 고산 농협 주말 돌봄방 사례 조사

농촌 지역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중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완주 고산 농협 주말 돌봄방을 방문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주 고산 농협 주말 돌봄방은 2014년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주말 돌봄방 사업의 우수 사례로 평가 받는다. 시설장부터 보육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보육·돌봄에 전문성이 있고, 농협과 연계하여 급·간식에 품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받고 있다.

완주군 고산 농협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농촌 지역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4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산 농협이 별도 차량을 지원하여 보육 아동을 등하원시키고, 돌보미 2명을 포함하여 시설장과 취사 담당자가 시간 외 자원 봉사를 수행하여 운영 인력 4명이 모두 농번기 주말에 아동들을 돌보고 있었다. 4년 간 운영하면서 노후된 장난감과 그림책을 교체할 필요가 있고 질 좋은 간식과 급식을 제공받기 위해 식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돌보미와 시설장에게 전문 보육과 연령대별 보육 프로그램을 기획 할 수 있도록 보육 워크샵 등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기 원했다.

방문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05일 15:00~16:00
- 장소 : 완주군 고산 농협
농번기 주말 돌봄방
- 참석 : 시설장 국미혜 계장



2.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첫 번째 실적 지표인 주말 돌봄방에서 돌보는 아동은 15명에서 18명 사이이다. 시설장과 취사도우미를 제외한 돌보미가 2명일 경우 1인당 7명 이상을 담당하고, 돌보미가 3~4명인 경우는 5명 이상을 담당하여 돌보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 주말 돌봄방 7개소 중 돌봄이 1인이 약 7명을 담당하는 지역이 5개소, 돌보미 1인이 약 5명을 담당하는 지역은 2개소로 돌보미 1인이 담당해야 할 아동의 수가 많다. 돌보미 인력을 최소 3명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3-14〉 전라북도 주말 돌봄방 운영 현황

시설명	사업운영 인력수	보육 인원	보육 시간	프로그램 내용 및 프로그램 수
고산 농협	4	17	256	▫ 블록놀이, 색종이, 구연동화 듣기 등 교육 지도
고창 여성 농업인센터	5	17	320	▫ 색칠공부, 책임어주기 및 실내외 자유놀이 활동
부안 여성 농업인센터	4	16	324	▫ 미술, 과학, 레고, 조각, 모래놀이, 돌봄방 주변 산책하기 ▫ 9.24일부터 매일 1일 고인돌공원 등 인근지역 견학
장수 농협	4	18	320	▫ 텃밭놀이, 블록놀이 이외 식생활예절 교육도 지도함
부안 백산여성 농업인센터	6	16	320	▫ 실내활동으로 만들기, 꾸미기, 그리기 등 지도, 실외활동 으로 텃밭체험, 석불사 산책 등 인근지역 견학
순창 여성 농업인센터	4	15	320	▫ 전래놀이, 대근육 활동 등 집단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무주 지역 아동센터	4	15	256	▫ 영화, 만화 영화 및 산책, 놀이기구 등 실외활동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년) 및 고산 농협(2017년) 내부 자료

두 번째 실적 지표인 주말 돌봄방이 운영하는 보육 시간은 평균 304시간으로, 주말 돌봄방이 소재한 지역별로 무주 256시간, 고산 272시간, 장수·부안백산·순창·고창 320시간, 부안 324시간으로 나타났다⁷⁾. 보육시간 320시간이란 하루 평균 10시간, 256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아동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5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미 2~3명, 혹은 4명이 주말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돌본다는 것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기 위한 아동 대상 보육 프로그램 내용과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보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하루 평일 최소 9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을 아동 15명 이상을 돌보는 것은 힘들다. 게다가 전북 지역 주말 돌봄방 7곳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색종이, 색칠공부, 책읽어주기, 만화영화 등 대부분 실내 활동이 차지하고 실외 활동은 산책하기, 놀이기구 타기, 인근 지역 견학하기 등 내용이 한정적이다.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최소 3개에서 7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 사업의 아동 및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번기에 주말 돌봄방 운영에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 돌봄, 급·간식 제공, 차량 운행, 돌보미 교사 등도 만족도가 높았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 현재 4개월 동안 운영되어 만족도도 높았으나,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가 많은 농촌지역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운영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시기 바라는 응답도 많았다.

2.3. 시사점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만 3세 5세 유아가 주요 대상이지만, 해당 부모들은 대상 연령대 아동과 함께,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인 형제·자매가 함께 돌봄방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돌봄의 대상 연령을 넓혀 영아 또는 초등학생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운영 기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주말 돌봄방 운영 기간은 6월에서 11월 사이 4개월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약 16주

7 해당 주말 돌봄방 자체 명칭을 생략하고 지역 명으로 대신함. 예를 들어, 무주 주말 돌봄방을 ‘무주’로 표기함.

동안 주말 돌봄방을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지역별로 농업 형태 등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별되지 않고 연중 바쁜 경우도 있다. 이에 지역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말 돌봄방의 운영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말 돌봄방 사업은 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돌보미를 농번기 주말에 구하기 힘들다. 돌봄방이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을 특성화·전문화해야 한다. 시설장과 돌보미의 보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미 보수 교육 등도 제공되어야 한다.

전북 지역에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 설치된 곳은 총 7군데로 전국 19곳 중 약 37%를 차지한다. 사업 예산은 1,236만 원으로 대부분인 인건비(돌보미, 시설장, 취사)로 지출된다. 교구·교재비와 급·간식비를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번기 주말 돌봄방의 운영 인력은 4명(시설장 1명, 돌보미 2명, 취사 1명)이지만 전북 지역 주말 돌봄방이 돌보는 보육 인원은 15명에서 17명 사이다. 현재 돌보미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는 다소 많은 편으로, 돌봄방별로 1명씩 돌보미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

주말 돌봄방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보육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장과 돌보미의 보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주말 돌봄방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는 만족도가 높았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의 목적은 ①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하고, ②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심신 단련을 위한 수련 공간 확충하여, ③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 사업기간: 1990 ~ 계속
- 총사업비: 해당 없음
- 지원내용
 - 지원형태: 자치단체 자본 보조
 - 지원기준: 지자체 지방 재정 자주도에 따라 총사업비 70~88% 지원
 - 단, 서울은 30% 지원(“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적용)

42 청소년 시설 확충

〈표 4-1〉 2017년 예산 및 지원 계획 변동 내역

구분	2016년 지원(A)	2017년 예산(B)	증감 (B-A)	증감률 (%)	비고
합계	48,117	62,4911	14,374	30%	102개소→130개소
청소년수련관건립	3,506	10,592	7,086	202%	5개소→ 12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건립	25,368	32,717	7,349	29%	31개소→38개소
청소년특화시설건립	1,967	843	△1,124	△57%	1개소→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7,276	18,339	1,063	6%	65개소→79개소

- 사업 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 사업 추진 체계
 -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통보(여가부) → 보조금 신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설계 검토(여가부) → 사업 추진(지자체) → 사업 추진 결과 점검(지자체·여가부) → 사업 정산
- 법적 근거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

〈표 4-2〉 청소년수련 현황 및 시설 개요

2016.12.31.기준, 단위: 개소

구분	개소	주요 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수련관	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하게 수련하는 종합 수련시설 ◦ (청소년 활동) 캠프, 주말 체험, 성취 포상제, 자원 봉사 활동, 해외 문화 체험·자원 봉사 등 국제 교류 활동, 동아리 활동 ◦ (교육문화) 외국어, 과학 창의력, 수학, 미술, 음악, 취미독서, 논술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 (생활체육) 수영, 헬스,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강화 ◦ (진로교육) 파티쉐, 바리스타, 디자이너, 요리사 등 진로 체험, 진로·직업 적합도 검사, 진로 상담, 관련학과 대학생 실습 등
문화의 집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히 수련하는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캠프·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 수학·어학 강좌 등 교육문화 강좌, 진로 체험 및 진로 지도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구분	개소	주요 기능 및 운영 프로그램
수련원	1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기능을 갖춘 종합 수련시설 ◦ 초·중·고교 연계 한교 단체 수련활동, 임원 수련회, 숙박형 현장 체험 학습, 일일 현장 체험 활동, 특성화 캠프 운영
야영장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시설을 갖추고 수련거리 및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야영을 매개로 수련원과 유사한 학 교단체 수련 활동 등 운영
유스 호스텔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 적합한 숙박 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은 허가 받은 시설·설비 범위 내에서 수련원과 유사한 학교 단체 수련 활동 등 운영
특화 시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수련시설 ◦ 영상 미디어, 진로 및 대안 교육, 성문화, 국제교류, 자원봉사 등 특정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구 규모 및 지역 현황,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시설을 건립하되, 중·소 규모 생활권 시설 우선 지원한다. 시설 부지 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집과 학교 근처 생활권에서 청소년 시설 및 체험 활동 수요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해당 법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설치율이 낮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점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청소년 수련관 신규 건립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여러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미 설치된 시·군·구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미 지원이 확정된 사업과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행정구는 별도 검토)에 조성할 경우 지원하도록 한다(단독시설로 설치).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은 시·군·구별로 평균 4개소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문화의 집은 2015년도 21개소에서 2017년도에 총 38개소까지 확충한다.

청소년 특화 시설을 신규 건립할 경우,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 체험 등 특화 시설 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한다. 청소년 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을 신규 건립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은 기능을 보장한다. 즉, 시설별 준공 연도와 시설 안전도, 내진 설계 여부, 운영 상황, 기능보장 내용 및 규모의 타당성 등

44 청소년 시설 확충

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다만, 건립 5년 이내 시설(2013년 이후 건립 시설)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단, 내진보강은 가능)

그리고 유휴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사무소, 폐교, 청소년 공부방 등 유휴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건립사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본 사업의 성과 목표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의 확대에 두고 있다. 청소년 시설 이용자는 2016년 37,702천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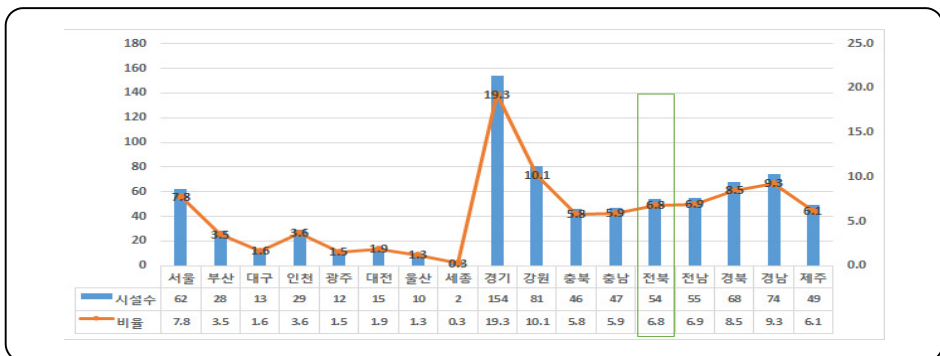
전국에서 청소년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54개소(19.3%), 다음으로 강원도 81개소(10.1%), 경남 74개소(9.3%), 경북 68개소(8.5%)의 순이다.

〈표 4-3〉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시설수	62	28	13	29	12	15	10	2	154
비율(%)	7.8	3.5	1.6	3.6	1.5	1.9	1.3	0.3	19.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설수	81	46	47	54	55	68	74	49	799
비율(%)	10.1	5.8	5.9	6.8	6.9	8.5	9.3	6.1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

〈그림 4-1〉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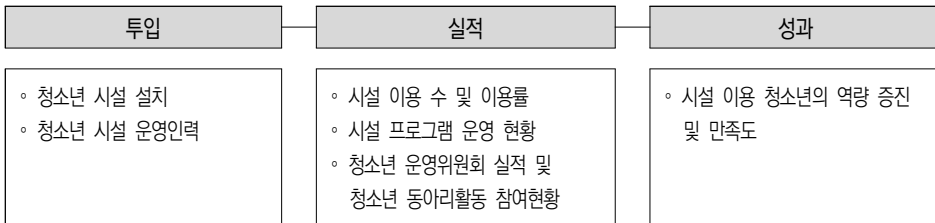


2. 지역 평가 결과⁸

전라북도에서 농촌(읍·면) 지역에 위치한 청소년 시설 중 방과 후 및 주말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중·소규모 청소년 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 하였다. 2017년 11월 기준,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은 총 55개(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은 2018년까지 사업 지속)로 지역 청소년 시설 사업 내용 및 주요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지표는 투입·실적·성과 지표로 구분하고, 측정된 최종 성과 지표는 농촌(읍·면) 지역의 청소년 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했다.

〈표 4-4〉 성과 지표의 측정



성과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성과 지표 중 양적 평가는 주로 지역 통계를 계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즉 양적 평가는 전국 대비 전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의 개소 수, 청소년 인구수 대비 시설 개소 수, 청소년 시설 운영 인력 현황, 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적 및 동아리 활동 참여 현황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⁸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의 1개 군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표 4-5〉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의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청소년 시설 설치 청소년 시설 운영인력 시설 이용 수 및 이용률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적 및 동아리활동 참여 현황
질적 평가	청소년 시설 이용한 청소년의 만족도

〈표 4-6〉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청소년 시설 설치	청소년 시설 설치 개수 및 설치율	정량
		지역별 청소년 인구수 대비 설치율	정량
	1-2. 청소년 시설 운영 인력	직원확보 현황	정량
		청소년 시설 내 청소년 지도자 수 확보 현황	정량
실적	2-1. 시설 이용 수 및 이용률	청소년 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정량
	2-2.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시설 프로그램 운영 개수	전량
	2-3. 청소년 운영위원회 실적 및 동아리활동 참여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 수 및 반영 비율	정량
청소년 동아리 활동 개수 및 회원 수		정량	
성과	3-1. 이용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만족도	시설 이용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만족도	정성

성과 지표 중 질적 평가는 실무자가 평가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역량 증진 정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2017년 기준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은 총 55개가 설치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청소년 시설 현황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2016년 청소년 시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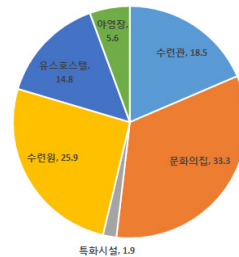
황 통계자료(여성가족부)를 살펴보았다.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수는 전국 합계 799개이며, 이중 전북 지역에 54개소(6.8%)가 있고 전국에서 7번째로 청소년 시설이 많다.

전라북도 내 시·군별 청소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시설은 김제시(7개소, 12.7%)와 무주군(7개소, 12.7%)에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주 6개소(10.9%), 완주군과 부안군 5개소(9.1%), 익산시와 고창군 4개소(7.3%), 군산, 임실군, 순창군은 각각 2개소(3.6%)이다. 한편,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군산으로 향후 군산은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 지역에 설치된 청소년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의 집이 18개소(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련원(14개소, 25.9%), 수련관(10개소, 18.5%)순이다. 전국 대비 전북의 청소년 시설 유형별 설치 현황을 보면, 청소년 시설 유형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 지역보다 청소년 시설이 확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 지역별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 수를 살펴보면, 김제시와 무주군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은 비율이 낮다.

〈표 4-7〉 전북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현황

구분	시설수	비율
계	54	100.0
수련관	10	18.5
문화의 집	18	33.3
특화시설	1	1.9
수련원	14	25.9
유스호스텔	8	14.8
야영장	3	5.6



자료: 전라북도 도청 자료(2017)

〈표 4-8〉 전라북도 청소년 시설 현황(2017년)

시군구	청소년 인구(%)	합계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텔	특화 시설
공공		38	10	19	5	2	2	1
민간		16	0	0	9	1	6	0
전북합계	340,848(100)	55	10	19	14	3	8	1
전주	137,169(40.2)	6(10.9)	1	4	0	0	1	0
군산	49,673(14.5)	2(3.6)	1	1	0	0	0	0
익산	59,036(17.3)	4(7.3)	1	1	1	0	1	0
정읍	19,290(5.6)	3(5.4)	1	2	0	0	0	0
남원	14,116(4.1)	2(3.6)	0	1	1	0	0	0
김제	12,348(3.6)	7(12.7)	1	2	3	0	1	0
완주군	15,321(4.5)	5(9.1)	1	1	1	1	1	0
진안군	3,291(0.9)	3(5.4)	1	0	1	1	0	0
무주군	3,273(0.9)	7(12.7)	1	1	3	1	1	0
장수군	3,070(0.9)	3(5.4)	0	1	1	0	1	0
임실군	3,630(1.1)	2(3.6)	0	1	1	0	0	0
순창군	4,022(1.2)	2(3.6)	1	1	0	0	0	0
고창군	8,678(2.5)	4(7.3)	1	2	0	0	1	0
부안군	7,931(2.3)	5(9.1)	0	1	2	0	1	1

자료: 전라북도 도청 자료(2017)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7년 기준), 청소년(9-24세)

두 번째 투입 지표인 청소년 시설 운영 인력 현황을 직원 확보 현황과 청소년 시설 내 청소년지도사 확보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시설 직원 확보 현황을 2016년 기준 정보를 등록된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설 당 전국 평균 직원은 10명이었으나 전북은 2명이 적은 8명으로 나타났다.

〈표 4-9〉 청소년 시설 유형별 설치 수 대비 전북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 호텔	수련원
전국	시설수	799	185	248	10	191	120	4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시설수	55	10	19	1	14	8	3
	비율(%)	6.8	5.4	7.3	10.0	7.3	6.7	6.7

구체적으로 청소년 시설 등 전북이 전국보다 수련관 직원은 5명, 수련원은 2명 적으며, 유스호스텔은 약 6명의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정규직 비율은 전북 지역 청소년 시설 유형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청소년 시설이 확보한 청소년 지도사 수는 전국 평균 시설 당 5명이나 전북은 1명이 적은 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수련관의 청소년 지도사는 전국 평균 7.5명이었으나 전북은 5.6명으로 나타났고, 문화의 집의 전국 평균 청소년지도사는 3.3명, 전북은 3.4명으로 유사하였으며, 수련원은 전국 평균 4.5명, 전북 3.5명으로 약 1명 더 적었다.

〈표 4-10〉 전국과 전북 청소년 시설 직원 확보 현황

구분		전국			전북		
		전체 직원 현황	정규직원 현황		전체 직원현황	정규직원 현황	
			정규직원 수(명)	정규직원 비율(%)		정규직원 수(명)	정규직원 비율(%)
전체	합계	4,878	3,669	72.9	258	201	78.0
	평균	10.2	7.7		8.1	6.3	
수련관	합계	2,474	1,762	73.8	76	57	78.9
	평균	15.2	10.8		10.9	8.1	
문화의 집	합계	949	641	63.4	85	61	70.5
	평균	4.9	3.3		5.3	3.8	
수련원	합계	1,086	960	87.9	80	67	90.3
	평균	12.8	11.3		10.0	8.4	
유스호스텔	합계	320	266	85.8	17	16	94.1
	평균	11.0	9.2		17.0	16.0	

주: 단, 전국 총 참여시설 수 478개, 수련관 163개, 문화의 집 192개, 수련원 85개, 유스호스텔 29개, 전북 총 참여 시설 수 32개, 수련관 7개, 문화의 집 16개, 수련원 8개, 유스호스텔 1개

〈표 4-11〉 전국과 전북 청소년 지도사 확보 현황

구분		전국				전북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명)	지도사 확보율(%) 전체 직원 기준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 (명)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 확보율(%)	청소년 지도사 (명)	지도사 확보율(%) 전체 직원 기준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 (명)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 확보율(%)
전체	합계	2,320	56.7	1,810	40.1	127	55.3	102	43.2
	평균	4.9		3.8		4.0		3.2	
수련관	합계	1,217	55.9	945	42.3	39	53.7	32	46.2
	평균	7.5		5.8		5.6		4.6	
문화 의집	합계	642	71.2	433	43.3	54	69.7	42	51.0
	평균	3.3		2.3		3.4		2.6	
수련원	합계	382	38.5	360	34.8	28	30.7	22	26.1
	평균	4.5		4.2		3.5		2.8	
유스 호스텔	합계	58	26.5	53	24.9	6	35.3	6	35.3
	평균	2.0		1.8		6.0		6.0	

주: 단, 전국 총 참여시설 수 478개, 수련관 163개, 문화의 집 192개, 수련원 85개, 유스호스텔 29개, 전북 총 참여 시설 수 32개, 수련관 7개, 문화의 집 16개, 수련원 8개, 유스호스텔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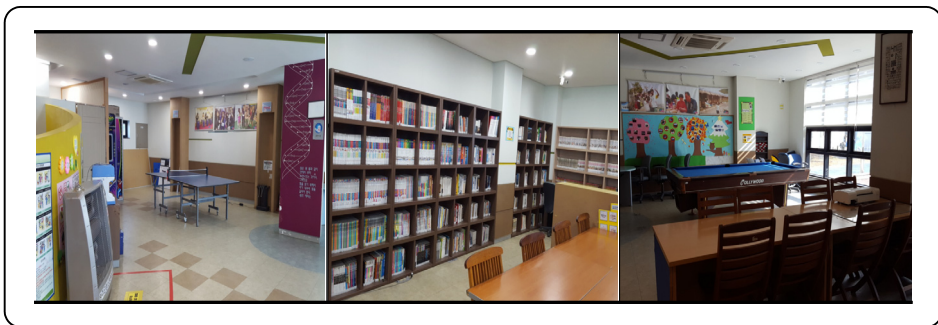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총 8명(관장 1명, 부장 1명, 업무 지원 팀 2명, 목적 사업팀 3명, 교육 문화팀 1명)이 종사한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에 대지 1,122m² 이고 건축 면적 1,022.77m²이다.

〈표 4-12〉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현황

구분	명칭	시설
1층	사무실	종합 안내 및 물품 대여: PC, 보드게임, DVD 등 운영관리 : 방송 장비, CCTV 장비, 소방 장비, PC, 팩스
	지도자실	상담: 탁자, 의자, 복사기 등
	열린도서실	열람: 열람탁자, 의자, 책장, 도서(구입 및 기증)
	AV감상실	음악 및 영화감상: AV시스템, 의자, DVD(구입 및 기증)
	탁구대	운동: 탁구대 및 탁구기구 세트
	당구대	운동: 당구대 및 당구기구 세트
	카페테리아	보드게임 및 휴식공간: 탁자 및 의자
2층	창작공방(포도반)	문화교실 및 프로그램 진행: 탁자 및 의자, 칠판
	공부방(생강반)	문화교실 및 프로그램 진행: 탁자 및 의자, 칠판
	동아리방 2실	동아리 활동 및 상담: 탁자, 의자, 칠판
	휴게실	휴식공간: 탁자 및 의자, PC
	악기 연습실	노래방: 노래방기기, 의자, 방음시설
	공연 연습실	공연연습: 마루바닥, 정면거울, 탈의실 및 샤워시설
3층	다목적홀	공연, 외의, 운동, 전시 : 음향장비, 무대, 의자, 매트 등
야외	농구장	운동 : 농구대, 배드민턴, 족구
	야외무대	공연, 전시 : 무대
	주차장	주차공간 : 주차장

〈그림 4-2〉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현황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방과 후 마을 학교는 우드 페인팅, 양말 인형, 그린 인테리어, 집단 아트 테라피, 스포츠 스택킹, 팀 빌딩 게임, 골프, 쿠킹 베이커리 등을 수행한다.

〈그림 4-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활동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 가족 관계 개선프로그램, 미용 진로 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우리 지역 직업 체험 프로그램, 미용 동아리, 제과·제빵 동아리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복지·보호·지도활동으로 성장 기반 마련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 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을 발굴한다.

- 기 간 : 1월 - 12월(월-토), 연간 총 240일 운영
- 대 상 : 중학생 1·2학년 40명
- 운영시간 : 평일 17:00 - 21:30, 토요일 09:00-14:00
- 내 용 : 기본공통과정, 자기 주도 학습, 주중 전문 체험, 주말 전문 체험, 자기 개발 과정, 특별 지원 과정, 생활 지원 과정 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

- 목 적: 글로벌 시대의 필수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 대 상: 만 7세 ~ 만 16세 청소년
- 운영방식: 1대1 가정 방문하여 재가 수업
- 제공기간: 12개월, 주 2회(월 8회)

- 내 용: 외국어 능력 진단 도구를 통한 청소년 기초 학력 측정, 맞춤형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마인드 교육(스토리텔링, 단어게임, 프리 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 발표회를 통한 사회성과 리더십 증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 목 적: 청소년기에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 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경험하여 긍정적 자기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
- 대 상: 만 7세 ~ 만 16세 청소년
- 운영 방식: 1대1 혹은 1대2 이하 그룹 수업, 12개월 동안 주2회/월8회
- 내 용: 자존감 회복을 위한 리더십 증진, 라이프 코칭, 진로 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자아 존중감 검사 및 부모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참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완주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띠’는 4월-12월(22회기) 간 운영하며 중·고생 440명이 참여한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다. 청소년 참여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청소년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 의사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완주군내에 거주하는 청소년(14세-24세)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4-4〉 완주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 모습



완주군 청소년 운영위원회 ‘비상(飛上)’은 4월~12월(27회기)에 운영하며 청소년 540명이 참여하고 완주군 지역 개선 모니터링 및 또래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만으로 구성하여,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모니터링 및 시설 운영 활성화 제안, 문화 교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청소년 욕구 및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지원 체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봉사 활동 동아리 : ‘인터랙트 클럽’ 2월~12월(5회기), 중학생 200명
- 댄스 동아리 : ‘스피릿’ 2월(1회기) 중·고등학생 5명, ‘문라이트’ 7월~12월(30회기) 중학생 180명
- 비보이 동아리 : ‘클라운존 7월~9월(10회기) 중학생 80명
- 미용 동아리 : ‘샵(#)’ 1월~12월(30회기) 중·고생 630명
- 제과·제빵 동아리 : ‘스윗베이킹’ 4월~12월(15회기) 고등학생 90명

〈그림 4-5〉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모임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청소년 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학과 관계 없이 하루 평균 222명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표 4-13〉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현황

구분	인원(명)				일 평균 이용자(명)	비고 (일)	
	합계	아동·청소년*	일반**	기타***			
월별 이용자	1월	5,652	5,003	199	450	226	25
	2월	2,714	5,094	320	300	212	27
	3월	5,926	5,396	415	115	191	31
	4월	5,979	5,232	429	318	206	29
	5월	5,952	4,898	455	599	198	30
	6월	5,792	5,253	479	60	199	29
	7월	6,458	5,136	482	840	215	30
	8월	5,530	5,002	448	80	184	30
	9월	5,792	5,253	479	60	199	29
	10월	4,413	3,989	302	122	201	22
	11월	5,902	4,938	521	443	211	28
	총	63,110	55,194	4,529	3,387	204	310

*아동·청소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대학생, 성인

***기타: 문화의 집 행사, 내방객

주: 이용자 통계는 동일인의 시설 중복 이용 시에도 1명으로 집계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및 사례 조사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7년 완주군의 주체로 설립되었으며 (사)봉상청소년육성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완주군(13개 읍·면) 모든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학교별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학교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연계 서각 체험 활동, 경찰서 연계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환경위생과 연계 물사랑 실천 캠페인 등), 청소년활동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사업(봉사·댄스·비보이·제과제빵·미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자기 개발 활동, 신체 단련 활동, 봉사 활동, 탐험 활동 등),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청소년 어울림 마당, 토요일 방과 후 마을 학교,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2017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전국 최우수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학교 연계 창의적 체험 활동: 완주군 지역 내 초·중·고 학교와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사회 내 청소년 수련 시설로의 위상 강화, 동아리·진로개발·자율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완주군 생활 문화 예술 동호회, 경찰서, 완주군청 등과 연계하여 서각 체험 활동,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물사랑 실천 캠페인, 학교폭력 근절 선도 프로그램 지원, 진로·직업 탐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생강골 포도송이'): 맞벌이·한부모·조손·다문화·다자녀 가정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주 5-6일(총 240일 운영)동안 교과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자기개발, 생활지원, 주말 전문 체험 활동, 생활 지원, 자기 개발 활동, 캠프 운영, 학부모 교육 및 간담회, 특별 강의, 발표회 등이 있다. 현재 40명 정원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를 대기하고 있는 청소년도 꽤 있다.
- 완주군의 자체 예산(약 600만 원): 학교 폭력 근절 선도 프로그램 및 청소년 농구 대회 등이 있다.

방문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06일
11:00~12:00
- 장소 :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 참석 : 최지나 업무지원 팀장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첫 번째 실적 지표인 청소년 시설 청소년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은, 2016년 여성가족부 자료를 기준으로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총 이용자 수는 1,052,388명이었으며 이중 청소년 이용자 수는 712,045명으로 평균 이용률은 84.1%였다.

수련관 총 이용자수는 590,069명이었으며 이중 청소년 이용자 수는 289,760명으로 이용률은 60.7%, 문화의 집 총 이용자 수는 446,697명이었고 이중 청소년 이용자수는 411,827명으로 이용률은 92.6%였다. 수련원 총 이용자수는 15,622명이었고, 이 중 청소년 이용자수는 10,458명으로 이용률은 83.4%였다. 종합하면, 문화의 집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수련관 이용률은 저조하였다.

두 번째 실적 지표인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개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북 지역에 등록된 9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73개였으며, 각 시설 당 평균 8.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련관은 평균 13.5개, 문화의 집은 평균 7.8개, 수련원은 평균 3.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편,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평균 수련관은 24.8개, 문화의 집은 11.2개, 수련원은 14.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의 청소년 시설 운영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프로그램 수		구분		프로그램 수	
전국	전체	합계	2,329	전북	전체	합계	73
		평균	16.6			평균	8.1
	수련관	합계	1,313		수련관	합계	27
		평균	24.8			평균	13.5
	문화의 집	합계	840		문화의 집	합계	39
		평균	11.2			평균	7.8
	수련원	합계	176		수련원	합계	7
		평균	14.7			평균	3.5

주: 단, 전국 총 참여시설 수 140개, 수련관 53개, 문화의 집 75개, 수련원 12개, 전북 총 참여시설 수 9개, 수련관 2개, 문화의 집 5개, 수련원 2개)

자료: 여성가족부(2016)

마지막 실적 지표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적 및 동아리활동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운영위원회 수와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체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는 196개이었고, 이중 건의사항 반영비율은 91.7%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는 수련관 55개, 문화의 집 144개를 가지고 있고, 회의 횟수를 살펴보면 수련관 총 47회, 문화의 집 총 26회를 진행하였으나 건의반영 비율은 문화의 집이 75.0%로 수련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5〉 전북 청소년 시설 이용자 수 및 이용률

구분		총 이용자 수	청소년이용자 현황	
			청소년 이용자수(명)	청소년 이용자 비율(%)
전체	합계	1,052,388	712,045	
	평균	50,113.7	33,906.9	84.1
수련관	합계	590,069	289,760	
	평균	118,013.8	57,952.0	60.7
문화의 집	합계	446,697	411,827	
	평균	31,906.9	29,416.2	92.6
수련원	합계	15,622	10,458	
	평균	7,811.0	5,229.0	83.4

주: 단, 총 참여 시설 수 21개, 수련관 5개, 문화의 집 14개, 수련원 2개)

자료: 여성가족부(2016)

〈표 4-16〉 전북 청소년운영위원회 실적

구분	운영위원 수	운영 실적				
		회의(회)	건의(건)	건의반영 건수(건)	건의반영 비율(%)	
전체	합계	196	73	12	11	
	평균	15.1	5.6	0.9	0.8	91.7
수련관	합계	52	47	8	8	
	평균	17.3	15.7	2.7	2.7	100.0
문화의 집	합계	144	26	4	3	
	평균	14.4	2.6	0.4	0.3	75.0

주: 단, 총 참여 시설 수 13개, 수련관 3개, 문화의 집 10개)
 자료: 여성가족부(2016)

다음으로, 청소년동아리 활동 개수와 동아리 회원 수를 2016년 기준 전북 지역 정보를 등록한 15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체 동아리활동 수는 305개, 동아리 활동 참여 회원 수는 2,97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수는 총 106개, 각 시설 평균 26개를 운영 중에 있었고,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수는 총 199개, 각 시설 평균 18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의 회원수는 1,164명(시설 평균 291명), 문화의 집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의 회원수는 1,808명(시설 평균 16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수련관은 전국 평균 16개의 동아리 수와 183명의 회원수를, 전북은 평균 26개의 동아리 수와 각 시설별 평균 290여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 전국 대비 동아리의 수와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 집은 전국 평균 10개의 동아리 수와 104명의 회원수를, 전북은 평균 18개의 동아리 수와 164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어 전국 대비 동아리 수와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전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참여 현황

구분		동아리 수(개)/ 평균(개)	동아리 회원(명)/ 평균(명)
전국	전체	3,012 / 13	32,285 / 139.8
	수련관	1,687 / 16.2	19,064 / 183.3
	문화의 집	1,325 / 10.4	13,221 / 104.1
전북	전체	305 / 20.3	2,972 / 198.1
	수련관	106 / 26.5	1,164 / 291
	문화의 집	199 / 18.1	1,808 / 164.4

주 1) 단, 전국 총 참여 시설 수 231개, 수련관 104개, 문화의 집 127개)

2) 전북 총 참여 시설 수 15개, 수련관 4개, 문화의 집 11개)

자료: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역량 증진 및 만족도를 청소년 시설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살펴보면,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들에게까지도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3. 시사점

전국 및 전라북도 지역에서 유형별로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전북 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려고 2017년 통계 자료를 찾아본 결과, 전북도는 물론 시·군 단위에서 청소년 시설 유형별 시설현황 및 프로그램 현황 등이 파편화되어 있어 취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 수련 시설 협회가 청소년 시설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시설의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청소년 시설 유형별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관리 방식 등을 공유하는 단체 간 연계와 네트워크가 없다.

전라북도 농촌 지역 청소년 시설 확충 정도를 타 시·도와 비교하여 청소년 시설 확충 수준은 중간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접근하기 불리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을 신규 확충할 경우 청소년 인구 추계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전북 지역에서 청소년 시설의 개소 수는 2017년 기준 55개다. 이중 김제시와 무주군에 각각 7개소가 있고, 전주 6개소, 완주군과 부안군 각각 5개소, 익산시와 고창군 각각 4개소, 군산시, 임실군, 순창군은 각각 2개소다.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 수가 적은 지역은 군산, 임실군, 순창군이며, 특히 군산시는 향후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북 지역 청소년 시설 운영 인력 현황은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2명 적은 8명이며, 특히 수련관이 전국 평균 보다 5명 정도 적다. 청소년 시설 내 청소년 지도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약 1명 적어 청소년 시설 운영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시설 유형별 청소년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은 수련관 이용률은 60.7%, 문화의 집 92.6%, 수련원은 83.4%로 수련관을 널리 이용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북 지역 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전국 평균 보다 운영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 특히 수련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와 내용이 부족하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본 사업의 목표는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이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다.

- 사업기간: 1202년 ~ 계속('05년 지자체 이양)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 내용
 - 여성 농어업인의 고충 상담, 여성 농어업인 자녀 영유아 보육 지원 등
- 사업규모
 - 여성농어업인센터 42개소 지원('16) : 46억2,400만원(지방비)
- 지원내용
 - 여성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 여성 농업인 교육·문화·복지활동 등
- 사업시행주체: 도지사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에서 매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
- 법적근거: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64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려고 운영비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표 5-1〉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2016년 추진 방향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1/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16.1월 '16.2~3월
2/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16.4월~6월
3/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16.7월~9월
4/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16.10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결과보고 	'16.12월

한편, 사업의 기대 효과는 여성 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문화·복지 지원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2. 지역 평가 결과⁹

전라북도의 여성농어업인센터는 6개 시·군에서 총 8개소가 있다.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남원시 산내면과 인월면, 진안군 부귀면, 임실군 임실읍, 순창군 유등면, 고창군 해리면 부안군 백산면과 하서면이다. 전북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부정기 사업(교육 문화 활동, 복지 활동, 농외 소득 증진 등)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의 목적인 고충 상담 및 영유아 보육

⁹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1개 센터를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지원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지원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성과 지표는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의 성격상 별도의 조직 구성, 전달체계 상의 특이 사항 등이 부재하여 최종 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양적 지표는 센터별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관련 ‘16년 계획을 검토하고 실제 수행한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사업 실적을 계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세부 내용은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사업의 건수와 인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충 상담은 반경 5km 이내의 여농 농업인수, 영유아 보육 사업은 아동수를 고려하였다.

〈표 5-2〉 양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 상담 사업 실적 ◦ 영유아 보육 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대비 고충 상담 건수 및 연인원 ◦ 목표 대비 영유아 보육 사업 건수 및 연인원 	정량 정량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사업의 고유 목적인 고충 상담을 수행(‘16년 기준)한 센터는 8개소 중 7개소이다. 당초 고충 상담 관련 계획이 없는 센터는 남원시 산내면, 진안군 부귀면 등 2개소이다. 당초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 또는 초과한 센터는 남원시 인월면, 순창군 유등면, 고창군 해리면, 부안군 하서면 등 총 4개소이다.

〈표 5-3〉 여성농어업인센터 고충 상담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세부 사업 내용				여성농업인수 (명)
		소계	자녀보육	가족문제	자기개발	
소계	계획(건수/연인원)	1,824/1,968	736/768	400/410	446/550	12,003
	실적(건수/연인원)	1,782/2,376	909/957	348/352	524/1,067	
남원시 산내면	계획(건수/연인원)	-	-	-	-	880
	실적(건수/연인원)	-	-	-	-	
남원시 인월면	계획(건수/연인원)	240/240	100/100	80/80	60/60	2,745
	실적(건수/연인원)	305/305	122/122	81/81	102/102	
진안군 부귀면	계획(건수/연인원)	240/240				1,380
	실적(건수/연인원)	173/403	118/118	9/9	46/276	
임실군 임실읍	계획(건수/연인원)	336/360	90/100	100/110	146/150	1,775
	실적(건수/연인원)	281/281	83/83	90/90	108/108	
순창군 유등면	계획(건수/연인원)	240/240	80/80	80/80	80/80	956
	실적(건수/연인원)	240/240	122/122	55/55	63/63	
고창군 해리면	계획(건수/연인원)	240/240	80/80	80/80	80/80	910
	실적(건수/연인원)	254/306	53/54	58/61	143/191	
부안군 백산면	계획(건수/연인원)	288/288	226/228	30/30	30/30	1,610
	실적(건수/연인원)	247/247	232/232	13/13	2/2	
부안군 하서면	계획(건수/연인원)	240/360	160/180	30/30	50/150	2,017
	실적(건수/연인원)	282/594	179/226	43/43	60/325	

여성농어업인센터로부터 반경 5km 내에 분포한 여성 농업인수는 평균 1,500명이며, 여성 농업인수 대비 고충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고창군 해리면의 경우 33.6%로 가장 높으며, 부안군 하서면 29.4%, 진안군 부귀면 29.2%, 순창군 유등면 25.1%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 상담의 세부 사업 중 인원 실적이 높은 항목은 자녀 보육과 자기 개발 항목이다. 각각 전체 여성 농업인수의 40.3%, 44.9%이고, 가족문제는 여성 농업인수의 14.8%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자기개발 항목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수는 계획 대비 실적이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여성 농업인의 관심의 높게 나타났다.

사업의 고유 목적인 영유아 보육 사업을 수행(‘16년 기준)한 센터는 8개 소 중 7개소이며, 당초 수립한 목표치를 달성 또는 초과한 센터는 순창군

유등면, 부안군 하서면 등 총 2개소이다.

여성농어업인센터로부터 반경 5km 내에 분포한 아동수는 총 2,287명, 평균 285명이며, 아동수 대비 보육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순창군 유등면이 가장 높으며, 남원시 산내면, 부안군 백산면, 부안군 하서면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 사업을 받은 전체 인원 45,425명 중 0~3세는 42,185명으로 92.9%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보육 사업은 8개소 중 3개소에서 3,240명으로 나타났다.

〈표 5-4〉 여성농어업인센터 영유아 보육 사업 세부 내용

구분		세부 사업 내용						아동수 (명)
		소계		0~3세		4세이상		
소계	계획(건수/연인원)	29,004	44,324	27,484	44,100	1,520	224	2,287
	실적(건수/연인원)	24,971	45,425	21,731	42,185	3,240	3,240	
남원시 산내면	계획(건수/연인원)	6,456	3,840	5,016	3,696	1440	144	171
	실적(건수/연인원)	6,158	3,880	4,358	2,080	1800	1,800	
남원시 인월면	계획(건수/연인원)							533
	실적(건수/연인원)							
진안군 부귀면	계획(건수/연인원)	720	3,520	720	3,520			141
	실적(건수/연인원)	360	1,760	360	1,760			
임실군 임실읍	계획(건수/연인원)	13,056	2,640	13,056	2,640			502
	실적(건수/연인원)	9,817	2,180	9,817	2,180			
순창군 유등면	계획(건수/연인원)	12	9,504	12	9,504			124
	실적(건수/연인원)	16	15,504	16	15,504			
고창군 해리면	계획(건수/연인원)	1,440	4,030	1,360	3,950	80	80	224
	실적(건수/연인원)	1,220	2,878	820	2,478	400	400	
부안군 백산면	계획(건수/연인원)	5,520	16,956	5,520	16,956			270
	실적(건수/연인원)	4,880	13,002	3,840	11,962	1040	1,040	
부안군 하서면	계획(건수/연인원)	1,800	3,834	1,800	3,834			322
	실적(건수/연인원)	2,520	6,221	2,520	6,221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순창군은 농업 인력의 여성화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미흡하다. 순창군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창군 유등면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순창읍과 근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등 접근성과 이용편리성이 양호하며, 근거리에 초등학교, 공공서관 등이 입지하고 있어 지역연계 활동이 가능하다. 부지 면적은 364㎡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센터 8개소 중 가장 작다. 시설 규모 174㎡로 상담실(9.0㎡), 사무실(10.2㎡), 보육실(72.3㎡), 학습실(24㎡), 조리실(9.12㎡), 화장실(13.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는 7개 마을(913세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농업인수는 956명, 아동수는 124명이다.

주요 사업은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돌봄 사업이며, 부정기 사업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도력 발굴 육성 교육, 복지 활동, 농외 소득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은 과중한 농업 노동과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 가족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교육 문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여성 농업인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방문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상담의 형식은 농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전화 상담과 방문상담 형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마을회관과 개인집을 방문하여 상담에 대한 홍보, 마을별 고충 상담, 개인 상담 등을 마을 교육 형태로 실시한다. 공부방 아이들과 일상적 상담을 통해 부모, 자녀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 형식은 면접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계획 건수와 인원은 각각 240건, 240명이었고 목표 대비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업 노동과 자녀 보육을 함께 진행해야하는 현실에서 보육 시설에 보내고자 하더라도 마땅한 시설이 없어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

여 여성농업인 영유아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보육이 어려운 영유아들을 우선 돌볼 수 있도록 영아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시간은 종일제로 운영하여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단은 유기농 농산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인지발달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한 영아 통합프로그램과 야외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 정원은 총 20명이며, '16년 계획 인원은 12명이었고, 수행 실적은 16명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시설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과 후 학습 지도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 후 독서 교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일상적인 학습 지도, 생활 지도, 독서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2016년 총 10명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초등학교 11명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을 운영하였다.

농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또는 취미 관련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자기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6년 14건, 연인원 174명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회당 10명, 연간 12회 매월 개최하고 있다. 고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바로 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당 40명, 년 중 2회 실시하고 있다. 농촌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 여성 건강 체조 및 행복 요가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6년 실적은 15건, 연인원 225명이다. 회당 15명, 농한기인 1월, 2월, 12월에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외 소득 증진 사업으로 '순창 산골 선물 꾸러미', '순창 촌 시장 참여 하기', '천연 조미료 만들기 교실' 등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부정기 사업 실적은 41건 연인원 1,145명으로 나타났다. 엄마들의 협동 공동체 모임인 '순창산골 선물꾸러미 사업'은 지역 경제의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협동 공동체 자리 매김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동기를 부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품을 만들고 있다.

월 2회 도시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한 순창지역 홍보와 도·농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관내 생산자는 10명, 월 소비자는 70여명이고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꾸러미를 발송하고 있다. 순창 촌시장 참여하기 사업은 매월 첫 주 토요일 순창에서 열리는 재래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만남을 통해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회당 10명 1년 동안 12회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한 천연 조미료 만들기 교실은 여성 농업인과 귀농한 여성과의 자연스런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 내 여성농업인들과의 교류와 소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회당 10명 1년 동안 14회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상담사 1명, 보육교사 3명, 조리원 1명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는 순창군 여성농민회 총무,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사무국장, 마을이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여성농업 관련 경력이 26에 이른다.

연간 사업비는 총 130,000천 원이며, 도비 26,000천 원, 시·군비 91,000천 원, 자부담 13,000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수익은 보육사업(12명)을 통해 연간 48,972천 원, 부정기사업(100명) 참가비 1,000천 원 등 총 48,972천 원이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전북 내 8개소로 전국 42개소('16년 기준) 대비 19%로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센터의 인력 예산을 살펴보면, 8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센터에서 상담사와 보육사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를 구성하는 인력 중 보육 교사의 예산 비중이 가장 많아 센터 운영 목적인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 있으나 일부 센터는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고충 상담과 관련된 내용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 상담과 영유아 보육 사업 외에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기 사업은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수요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매뉴얼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부정기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고충 상담 사업은 도내 센터별 평균 연인원 실적이 339명으로 집계(고충 상담 미 운영 센터 제외)되고 있다. 센터가 위치한 여성농업인 평균 1,589명 고려 시 약 21.3%가 정책 수혜를 받고 있어 정책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충 상담 실적이 없는 센터는 자기 개발, 자녀 보육, 가족 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표 5-5〉 세부 지표별 평가 내용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양적 평가	·고충 상담 사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정신적 안정 및 안정적 농촌생활에 기여 · 센터별 년 평균 254건 상담 수행, 연인원 실적 339명 · 향후 자기개발과 관련된 상담 후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지원 필요 	정량
	·영유아 보육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에 기여 · 센터별 년 평균 3,567건 수행, 연인원 실적 6,489명 · 방과 후 아동돌봄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아동 돌봄 거점으로 육성 검토 	정량

고충 상담의 세부 항목 중 자기 개발에 대한 실적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서 상담에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 사업은 1개 센터를 제외하고 모든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3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출산 후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보육과 관련해

서 영유아 외에 부정기 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 사업을 5개 센터(평균 18명)에서 추진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물론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 대상 방문교육 서비스와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성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 및 자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1. 다문화 가족 대상 방문 교육 서비스 제공

1.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게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방문교육지도사 2,240명을 지원하는 데 161억 400만 원을 투입하였다. 지원 조건은 지자체 보조이며 사업 시행 주체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민간수행기관 등이다.

방문교육 서비스는 방문 한국어 교육, 방문 부모 교육, 방문 자녀 생활 교육으로 구분한다. 방문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어휘, 문법, 활용, 문화 등 단계별·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중 10개월 동안 제공하며, 주 2회, 1회당 2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가정 방문 이나 1:1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방문 부모 교육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생애주기에 따라 총 3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구분하여 5개월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2회, 1회당 2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가정 방문이나 1:1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방문 자녀 생활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인지 영역, 자아·정서·사회 영역, 문화 역량 강화 영역, 시민 교육 영역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년 중 10개월 동안 제공되며, 주 2회, 1회당 2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가정 방문이나 1:1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방문교육 서비스는 2016년 1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18일까지 10개월간 제공되었다.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은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이며, 부모교육은 생애주기별 각 1회(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를 지원한다. 자녀 생활 교육 지원 대상은 만 3~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와 중도입국자녀이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법적 근거로 추진한다.

1.2. 지역 평가 결과¹⁰

1.2.1.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를 평가하려고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례를 분석하였다. 2016년 기준 평창군 내 결혼이민자는 237명으로 베트남(86명)과 중국(72) 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¹⁰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한 강원도 내 1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표 6-1〉 평창군 결혼이민자 현황(2016년)

구분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우즈벡	네팔	그 외
인원	237	86	72	29	24	8	8	3	2	5

평창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남부/북부 지역 간 거리가 멀어 최대 1시간이 소요되며, 1개 읍과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2016년 평창군 방문교육 서비스 예산은 2,235만 4,000원이 투입되었다.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은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투입 자원은 개설 반 수, 개설 횟수, 개설 시간으로 구분된다. 개설 반 수의 경우, 한국어 교육 15개, 부모 교육 2개가 개설되었다. 개설 횟수는 한국어 교육 80회, 부모 교육 40회이다. 개설 시간은 한국어 교육 1,066시간, 부모 교육 216시간이다.

1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한국어 교육은 총 15개 반이 개설되어 반별 총 80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1회당 교육 시간은 2시간이다. 교육 목표 인원은 15명을 교육하여 목표의 167%를 달성하였다. 누적 인원은 622명이다. 15명 중 서비스 중지 1명, 타 센터 연계 1명, 서비스 종료 6명, 서비스 계속 7명이다.

〈표 6-2〉 방문교육 사업 중 한국어 교육 실적(2016년)

구분		한국어 교육
실인원	계획	9명
	실적	15명
	달성률	167%
개설 반 수		15개 반
진행 시간		1,066시간

부모 교육 서비스는 2개 반이 개설되었으며, 반별 총 40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1회당 교육 시간은 2시간이다. 당초 계획 인원은 4명이었으나 2명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 누적 교육 인원은 18명이다. 이 중 서비스 중지 1명, 서비스 종료 1명이다.

〈표 6-3〉 방문교육사업 중 부모 교육 실적(2016년)

구분		부모 교육
실인원	계획	4명
	실적	2명
	달성률	50%
개설 반 수		2개 반
진행 시간		216시간

방문 자녀 생활 교육 서비스는 2명이 목표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방문 자녀 생활 교육 서비스는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사교육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크다.

결과 지표는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한국 생활 적응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정성적 성과를 결과 지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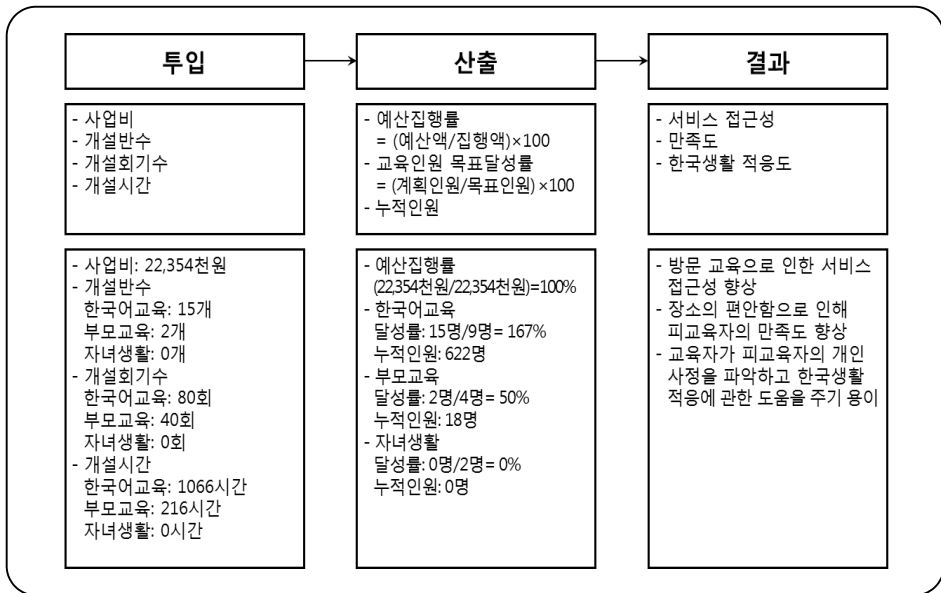
인터뷰 결과, 방문교육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다. 평창군은 군내 교통편이 매우 불편한 면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방문교육 서비스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서비스 수혜자의 가정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교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교육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또한 방문교육 지도사는 일찍이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이기 때문에 피교육자와

의 동질감이 형성되어 교육의 효과가 높았다.

부모 교육은 출산부터 아이 키우기에 이르는 모든 방법을 방문교육 지도사가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한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방문교육 지도사와의 잦은 접촉으로 피교육자의 사정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며, 방문교육 지도사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피교육자의 만족도가 높다.

〈그림 6-1〉 방문교육 서비스 투입-산출-결과 지표(2016년)



1.3. 시사점

1.3.1. 서비스 제공 인력인 방문교육지도사의 물리적 이동거리

방문교육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 수혜자의 접근성이나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나,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기관의 어려움은 증가하였다. 교통의 불편함

과 이동거리 증가의 문제가 서비스 수혜자에게서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넘어갔다. 반면, 제공 기관 및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 관련 경비의 상승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시 지역과 군 지역은 교통의 편리성과 이동거리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인건비 혹은 이동경비의 차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이동거리, 교통 불편 및 운전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서비스 담당자 인터뷰>

방문교육 사업으로 인해 대상 가정들의 만족도나 이용 편리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반대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이동과 운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운전의 경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경비가 낮습니다. 지금 수업은 1회 2시간 진행하는데, 수당이 25,000원입니다. 몇 년째 제자리에 있습니다. 급여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비로 1회당 4,000원이 지원되고, 군에서 2,500원을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값 외에 개인차량의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시: 2017. 11. 27. (월). 15:00~17:00>

<장소: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동선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우선 순위가 장애, 한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벌이 등으로 정해져 있어 대상자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 평창군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1명이 4개 읍·면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평창군 대관령면의 경우, 평창읍보다는 강릉시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소관 행정구역이 평창군이기 때문에 평창읍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광역차원의 방문교육지도사 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3.2.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평가 체계 과다

매년 이루어지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매년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직무 지식 평가, 대상자 만족도, 센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센터평가는 담당자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수행한다.

해당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전국 단위 하위 10%에 해당되면 방문교육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문제는 평창군과 같은 군 지역의 경우, 방문교육지도사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5년차 이상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평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직무 지식 평가, 만족도 평가, 센터평가 등 다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3.3. 방문교육지도사 고용 불안 및 급여 문제

방문교육지도사의 급여가 낮기 때문에 1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많은 서비스 대상자를 방문하여 교육해야 충분한 급여가 확보된다. 읍·면별로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지도사의 이동거리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방문교육지도사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제약되기 때문에 충분한 급여를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급여 자체도 낮은 수준인데 읍면별로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급여가 더욱 낮아져 방문교육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고용 안정과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3.4. 한국어 교육 대상자 확대

현재 방문교육 서비스 중 한국어 교육은 서비스 대상자 요건이 입국 5년 이내 결혼 이주자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면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결혼 이주여성은 이주한 지 1~2년 이내에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이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이나, 임신·출산 이후 육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어느 정도 육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입국 후 5년이라는 수급자격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

결혼 이전에 한국에서 직업 활동을 하다가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서비스 수급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방문교육 서비스 담당자 인터뷰>

평창에서 방문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서 받지 못한 사례 중에 결혼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에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 8년간 일을 하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한 이후에 결혼이주비자 발급을 받고 다문화 가정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했으나, 이미 입국한 지 5년이 지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읽고 쓰는 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데, 수급요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조건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 2017. 11. 27. (월). 15:00~17:00>

<장소: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2.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다문화 가족 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가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2015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217개소에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지원 조건은 지자체 보조이며, 사업 시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이며,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과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아동 보육, 교육)을 근거로 추진한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공통필수 연 120시간 이상 운영하며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 작용 교육, 자조 모임 등의 유형으로 추진된다. 부모 교육은 3~5월 동안 2그룹으로 총 10회, 총 20시간을 제공한다. 부모-자녀 상호 작용 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과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5~10월 동안 4그룹으로 총 40회, 총 80시간을 제공한다. 자조 모임은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다문화 정체성 함양하고자 9~10월 동안 1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총 20시간을 제공한다.

2.2. 지역 평가 결과¹¹

2.2.1.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¹¹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을 실시한 강원도 내 1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2016년 평창군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1,715만 5,000원이 투입되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 작용, 자조 모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투입 자원은 개설 반 수, 개설 횟수, 개설 시간으로 구분된다. 부모 교육 2개 반, 부모-자녀 상호 작용 6개 반, 자조 모임 3개 반이 개설되었다. 개설 횟수는 부모 교육 10회, 부모-자녀 상호 작용 10회, 자조 모임 10회이다. 개설 시간은 부모 교육 20시간, 부모-자녀 상호 작용 120시간, 자조 모임 20시간이다.

2.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이중 언어 부모 교육 사업은 2개 반을 10회 총 20시간 운영하여 교육 인원 20명, 누적 교육 인원이 71명이다. 부모-자녀 상호 작용 교육 사업은 6개 반을 총 60회, 총 120시간 운영하여 교육 인원 33명, 누적 교육 인원이 248명이다. 자조 모임은 3개 반을 10회 총 20시간 운영하였다. 교육 인원 21명, 누적 교육 인원이 61명이다.

결과 지표는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한국 생활 적응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 등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정성적 성과를 결과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어 방문교육 서비스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 대상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읍면별로 장소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였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읍·면에서 교육할 경우 교육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언어 코치의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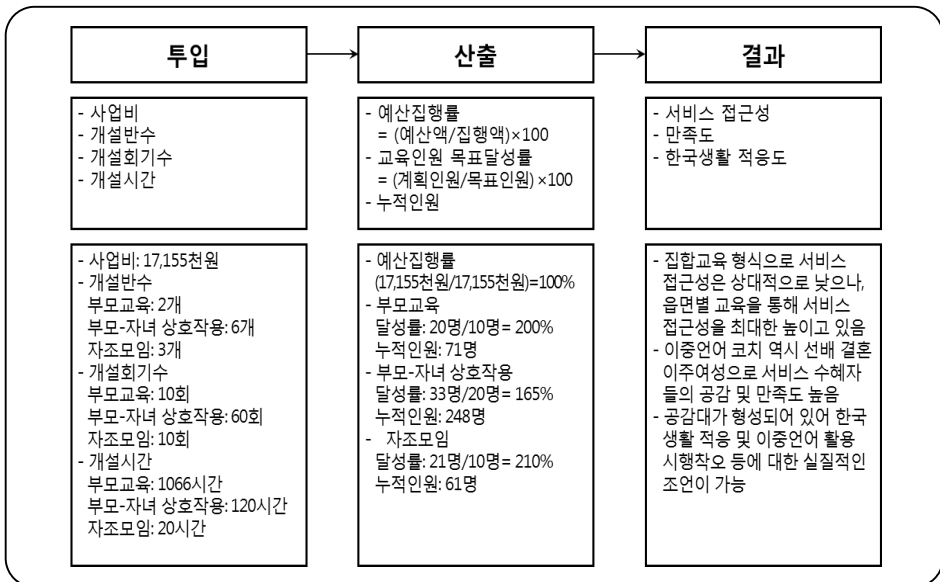
이중 언어 코치 역시 결혼이민여성으로 서비스 대상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중 언어 코치와 서비스 수혜 결혼이민여성 사이에 멘토-멘티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한국 생활 적응, 이중 언어 사용에 따른 가족 내 의사소통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감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으로 아이와의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어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높다. 이중 언어 코치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된다. 가족 내 의사소통,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다.

〈표 6-4〉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실적(2016년)

구분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교육	자조 모임
실인원	계획	10명	20명	10명
	실적	20명	33명	21명
	달성률	200%	165%	210%
개설 반 수		2개 반	6개 반	3개 반
진행 시간		20시간	120시간	20시간

〈그림 6-2〉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투입-산출-결과 지표(2016년)



2.3. 시사점

2.3.1. 사업비 중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문제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의 2016년 사업비는 총 1,715만 5,000원이며, 이 중 프로그램운영비가 120만 원으로 매우 부족하다. 해당 사업은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자조 모임을 운영하게 되며, 단위사업은 최소 10회에서 최대 60회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120만 원으로 매우 부족하다. 이중 언어 코치 인건비로 사업 예산이 대다수 투입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우 적다.

2.3.2. 과도한 집합교육 의무가족 기준으로 대상자 모집 어려움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각 시·군별로 최소 40가족 이상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소 교육 의무가족 40가족이 모든 시·군에 절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창군의 경우, 사업 대상 가족이 약 80가족인데, 이 중 50%인 40가족에 집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원주시의 경우 사업대상 가족이 약 300가족 이상인데, 평창군과 동일하게 40가족 이상에게 집합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와 같은 대도시보다 농어촌의 군 지역이 해당 사업의 대상가족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별로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대상 가족 수의 편차가 매우 큰데, 의무교육가족을 40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군 지역과 같이 규모가 작은 지역은 대상가족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대적인 기준인 40가족이 아니라 비율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전체 대상 가족의 40%).

집합교육 의무 가족 기준을 시와 군을 구분하거나 혹은 읍·면과 동을 구

분하여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군 지역이 평가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군 지역의 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한 가족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2.3.3.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필요

현재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중 아이를 위한 교재가 너무 획일화 되어 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의 대상 가족에 포함된 아이는 만 5세 이하로, 대부분 3~5세 사이의 아이들이다. 3살부터 참여한 아이는 4, 5살 때에도 같은 교재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이들의 습득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최소한 3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집합교육 형식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교육받은 학생과 신규로 교육받는 학생 사이에 수업 태도 및 이해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초 및 심화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2.3.4. 가족코칭 사업의 추가로 인한 어려움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은 2016년까지 부모 교육, 부모-자녀 상호 작용, 자조 모임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가족코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족코칭은 결혼이민자 본인, 남편, 시부모, 아이 모두가 참여하는 서비스로 교육이 가능한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이다. 가족코칭 지도사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이 없어 업무 및 급여 여건이 열악하다. 또한 기존의 3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큰 예산 증액 없이 사업이 추가되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창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중 언어 코치 인터뷰>

기존에 있던 3개 사업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코칭이 추가되어 부담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코칭은 본인, 남편, 시부모, 아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 시간이 저녁밖에 없습니다. 저도 결혼이주여성이고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힘듭니다. 그리고 급여가 오르긴 했는데 8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업이 추가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해서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시: 2017. 11. 27. (월). 15:00~17:00>

<장소: 평창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농촌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은 읍·면의 복지 갈대기를 해소하고 상담과 사례 관리 등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읍·면을 사례 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의 복지 정책은 대부분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신청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미신청자, 즉 복지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지 전달 체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직접 방문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이 같은 농촌 지역을 포함한 지역 복지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읍·면에 방문형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및 사례 관리,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6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2016년도 계획에 일반 회계 예산으로 2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6년도에 62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총 933개)하여 읍·면·동 주민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 사업기간: 2016 ~ 계속
- 총사업비 : 28억3,900만원(일반 회계), 2016년 투융자 계획
- 사업 내용
 - 읍·면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 및 운영(팀장 포함 3명 이상)
 - 전담팀에서는 찾아가는 방문형 복지서비스제공, 가구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간조직 및 자원 적극적인 활용 담당
 -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 복지이장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관 복지자원의 유효적 연계체계 구축
- 사업 규모 : 전국 30개소 선정 지원
 - 팀설치 및 업무모델이 되는 읍·면·동을 시도별로 1-2개소 선정하여 타 읍·면·동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
 - 2016년 전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 33개 지자체 추진
- 지원 내용
 - 읍·면·동 허브화 모델링 사업 추진 읍·면·동에 대하여 사례관리사업비 지원(700개소, 600만원 지원)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회의 및 워크숍)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비 등
 - 성공노하우 확산을 위한 모델링 사업으로 타지역 벤치마킹 기회제공(30개소, 2,000만원 지원)
- 사업 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전라북도-시·군(읍·면·동)
- 지원 기관: 시도별 1-2개소(읍·면·동)
- 법적 근거: 복지부 및 행정처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발표(2016. 1)

〈표 7-1〉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지역 선정 결과

구분	계(a)*	계(b)**	기본형(c)	권역형		
				계	중심동(d)	일반동(e)
계	933	624	484	449	140	309
선도지역	51	33	26	25	7	18
확산지역	882	591	458	424	133	291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33개 선도 지역에 이어 추가로 591개 읍·면·동 주민 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하였다. 2016년엔 읍·면·동 주민 센터 700개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2017년도에는 2,100개소(순증, 1,120개), 2018년도에는 3,496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의 성과 지표는 읍·면·동 사례 관리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이다. 성과 목표의 달성 기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 표본조사 후 전화 만족도 80점 이상을 설정하였다.

시행 계획에서는 본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①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농어업인 맞춤형 복지행정 제공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 그리고 ② 민·관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에 따른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대한 접근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역 평가 결과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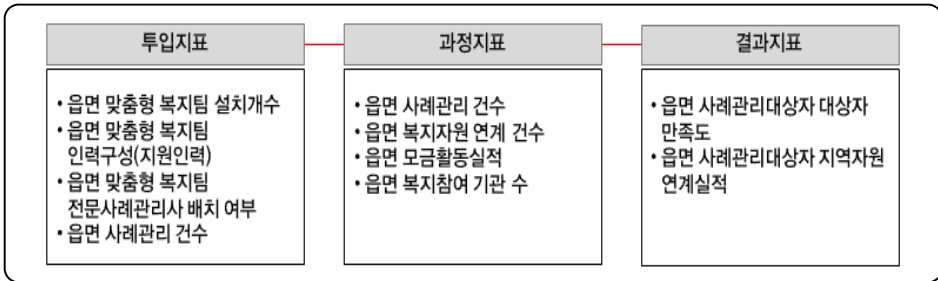
본 사업의 평가 대상은 읍·면 사무소 중 행정복지센터(복지허브화)로 전환된 읍·면 지역이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2017년도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은 총 2,100개(순증 1,120개)로 이들 지역의 맞춤형 복지전담팀의 사업 내용 및 주요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는 투입 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로 측정하되 최종 결과지표는 읍·면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와 사례관리 대상자 지역자원 연계실적 등으로 평가체계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성과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당초 정책목표였던 읍·면 복지 전달 체계의

¹² ‘농촌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의 1개 면을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의 실제 복지체감도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7-1〉 성과 지표의 측정(안)



성과 지표 중 양적 평가는 주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읍·면 지역에서 계량적 통계 산출이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적 평가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 읍·면 지역 수, 맞춤형 복지의 사례 관리 연계 건수,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한 읍·면 맞춤형 복지의 수, 그리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사각 지대 발굴 건수,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민·관 복지 자원 활용 건수(민간 모금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성과 지표 중 질적 평가는 계획서 상의 성과 목표인 읍·면 사례 관리 대상 만족도 80% 이상은 현실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읍·면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행정 만족감으로 평가하였다.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복지 행정에 대한 만족감도 직접 주민 설문 조사를 수행하기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접 조사를 수행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평가 자료의 한계로 농촌 복지 전달 체계 개편하기 위해 투입 지표로 맞춤형 복지팀 설치 개수, 맞춤형 복지팀 적정 인력 배치 여부, 민간 인력(사례관리사)의 배치 여부 등을 정량 지표로 평가하였다. 맞춤형 복지팀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 사각 지대 발굴 건수,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 자원 발굴 건수 등으로 측정하였다.

〈표 7-2〉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 개수(전체 읍면수 대비 맞춤형 복지팀 설치율) ◦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관리 연계 건수 ◦ 읍면 맞춤형 복지팀 중 민간 전문인력 채용인력 읍면 수 ◦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복지사각 지대 발굴 건수 ◦ 읍면 맞춤형 복지팀의 민간 복지지원 건수(민간모금액)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읍면의 주민 복지 행정의 만족도

〈표 7-3〉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맞춤형 복지팀 설치	◦ 농촌 지역 맞춤형 복지팀 설치 개수	정량
	1-2. 맞춤형 복지팀 적정인력배치	◦ 맞춤형 복지팀 참여공무원 수	정량
		◦ 맞춤형 복지팀의 전문성(팀장의 복지경력여부)	정량
1-3. 맞춤형 복지팀 민간인력배치	◦ 맞춤형 복지팀 민간인력 채용자 수	정량	
실적	2-1.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연계 건수	◦ 맞춤형 복지팀 지역복지기관 사례관리 연계건수	정량
	2-2. 맞춤형 복지팀 복지사각 지대발굴건수	◦ 맞춤형 복지팀 정부지원 이외 복지사각 지대 발굴 및 지원 건수	정량
	2-3. 맞춤형 복지팀 민간 복지지원발굴건수	◦ 맞춤형 복지팀 민간복지지원(복지시설, 민간복지지원 모금액 등) 발굴 건수	정량
성과	3-1.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행정만족도	◦ 맞춤형 복지팀 설치 농촌 지역(읍면)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라북도의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 개수는 2017년 10월 현재 전체 읍·면·동 241개소에 총 191개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79.3%에 이른다. 이중 농촌 지역 특히, 완주군을 비롯한 8개 군 지역의 맞춤형 복지팀 설치율은 총 87개 읍·면 중 62개 읍·면에 설치되어 설치율은 71.2%이다.

〈표 7-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현황

시군구	전체 읍면동 수	2016년 실적					2017.10월 누적실적				
		계	기본형	권역형		시행율 (%)	계	기본형	권역형		누적 시행율 (%)
				중심동	일반동				중심동	일반동	
구 분	241	53	35	5	13	22.0	191	114	25	52	79.3
전주시	33	3	3			9.1	33	33			100.0
군산시	27	5	5			18.5	16	7	3	6	59.3
익산시	29	9	9			31.0	29	18	4	7	100.0
정읍시	23	2	2			8.7	23	23			100.0
남원시	23	7	4	1	2	30.4	15	4	3	8	65.2
김제시	19	4	4			21.1	13	6	3	4	68.4
완주군	13	4	4			30.8	7	4	1	2	53.8
진안군	11	1	1			9.1	8	1	2	5	72.7
무주군	6	1	1			16.7	4	1	1	2	66.7
장수군	7	7		2	5	100.0	7		2	5	100.0
임실군	12	4		1	3	33.3	7		2	5	58.3
순창군	11	1	1			9.1	7	1	2	4	63.6
고창군	14	4		1	3	28.6	9	9			64.3
부안군	13	1	1			7.7	13	7	2	4	100.0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7-5〉 전라북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지역 현황

지역	설치 읍면		
익산시	100.0%	9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낭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합열읍
정읍시	100.0%	15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감곡면, 응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신태인읍
남원시	65.2%	7	주천면(산동면, 수지면, 이백면), 금지면(주생면, 송동면, 대강면), 죽산면(성덕면, 부량면), 백산면(공덕면), 용지면, 청하면(만경읍), 금산면
완주군	68.4%	5	이서면, 고산면(비봉면, 동상면),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진안군	53.8%	3	안천면(응담면, 상전면, 동향면), 마령면(백운면, 성수면), 진안읍
무주군	72.7%	1	무주읍
장수군	66.7%	2	장계면(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장수읍(산서면, 번암면)
임실군	100.0%	2	관촌면(운암면, 신평면, 신덕면), 강진면(청운면, 덕치면)
순창군	58.3%	3	동계면(인계면, 적성면), 구림면(북흥면, 상치면), 순창읍
고창군	63.6%	9	아산면, 공음면, 대신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보안면, 고창읍
부안군	64.3%	9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행안면, 상서면), 보안면, 변산면(진서면, 위도면), 백산면, 하서면, 줄포면, 부안읍

농촌 지역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율을 보면, 완주군은 53.8%, 진안군 72.7%, 무주군 66.7%, 장수군 100%이다. 농촌 지역의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율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최소 53.8%~최대 100.0%)

농촌 지역의 맞춤형 복지팀 설치현황을 2017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봤다. 부안, 익산, 정읍, 장수 등의 지역은 당초 계획에 비해서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임실군과 완주군은 중앙 정부의 기준선인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맞춤형 복지팀장의 직렬과 맞춤형 복지팀의 공무원 수 그리고 민간인력 채용 등을 평가했다. 대체로 대부분의 읍·면 지역 대부분에서 맞춤형 복지 팀장은 복지직이 맡고 있다. 일부 지역(함열읍, 용진읍, 아산면, 흥덕면 등)은 복지와 유사한 보건 직렬도 맞춤형 복지 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맞춤형 복지팀을 전문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복지직 공무원을 팀장으로 배치하도록 권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을 포함한 행정, 농업 등 직렬 배치는 복지 행정 전문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덕천면, 산외면, 동진면 등의 지역은 농업 및 공업직이 맞춤형 복지 팀장으로 배치되어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직과 유사한 행정 경험을 가진 행정직이나 보건도 복지 분야의 행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 목적으로 제시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읍·면 단위 복지 전달 체계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7-6〉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추진 상황(2017년 10월 기준)

구분	구성 시기	맞춤형 복지 팀장 직렬	복지경력 여부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수 (팀장포함)	민간인력 채용건수(명)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기타
마령면	2017.07	사회복지	Y	2.0	-	-	-
장계면	2016.10	행정	Y	2.0	1.0	-	-
관촌면	2016.06	사회복지	Y	3.0	-	-	-
강진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동계면	2017.07	사회복지	Y	2.0	-	-	-
구림면	2017.07	행정	Y	2.0	-	-	-
아산면	2017.07	보건	Y	4.0	-	-	-
공음면	2017.07	행정	N	4.0	-	-	-
대산면	2017.07	보건	Y	4.0	-	-	-
심원면	2017.07	행정	N	3.0	-	-	-
흥덕면	2016.07	보건	Y	4.0	-	-	-
성내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신림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보안면	2017.07	사회복지	Y	4.0	-	-	-
주산면	2017.07	행정	Y	3.0	-	-	-
동진면	2017.07	농업	Y	3.0	-	-	-
계화면	2017.07	사회복지	Y	3.0	1.0	-	-
보안면	2017.07	농업	N	3.0	-	-	-
변산면	2017.07	농업	Y	3.0	1.0	-	-
백산면	2017.07	행정	Y	3.0	-	-	-
하서면	2017.07	행정	Y	3.0	-	-	-
줄포면	2017.07	행정	Y	3.0	-	-	-
함열읍	2016.10	보건	N	3.0	-	-	-
신태인	2016.06	사회복지	Y	3.0	-	-	-
삼례읍	2016.07	사회복지	Y	3.0	1.0	-	-
봉동읍	2016.07	사회복지	Y	3.0	1.0	-	-
용진읍	2016.10	보건	Y	2.0	1.0	-	-
진안읍	2016.10	사회복지	Y	5.0	-	-	-
무주읍	2016.06	사회복지	Y	2.0	-	-	-
장수읍	2016.07	사회복지	Y	2.0	1.0	-	-
순창읍	2016.08	사회복지	Y	2.0	-	-	-

구분	구성 시기	맞춤형 복지팀장 직렬	복지 경력 여부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 수 (팀장포함)	민간인력 채용건수(명)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기타
고창읍	2017.07	사회복지	Y	3.0	-	-	-
부안읍	2016.07	사회복지	Y	3.0	-	-	-
오산면	2016.06	행정	Y	3.0	-	-	-
황등면	2017.07	보건	N	2.0	-	-	-
함라면	2017.09	사회복지	Y	3.0	-	-	-
용안면	2017.09	사회복지	Y	2.0	-	-	-
낭산면	2017.09	사회복지	Y	3.0	-	-	-
금마면	2017.07	행정	Y	3.0	-	-	-
왕궁면	2016.09	보건	N	3.0	-	-	1.0
춘포면	2017.07	행정	Y	2.0	-	-	-
북면	2017.03	행정	N	2.0	1.0	-	-
입암면	2017.07	행정	N	3.0	-	-	-
소성면	2017.07	행정	N	3.0	-	-	-
고부면	2016.06	사회복지	Y	3.0	-	-	-
영원면	2017.07	행정	N	3.0	-	-	-
덕천면	2017.07	공업	N	3.0	-	-	-
이평면	2017.07	행정	N	3.0	-	-	-
정우면	2017.07	행정	N	3.0	-	-	-
태인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감곡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응동면	2017.07	세무	N	3.0	-	-	-
칠보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산내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산외면	2017.07	농업	N	3.0	-	-	-
주천면	2017.07	사회복지	Y	3.0	-	-	-
금지면	2017.07	사회복지	Y	2.5	-	-	-
죽산면	2017.07	사회복지	Y	2.0	-	-	-
백산면	2017.07	사회복지	Y	2.0	-	-	-
용지면	2017.04	사회복지	Y	3.0	-	-	-
청하면	2017.04	사회복지	Y	3.0	-	-	-
금산면	2017.04	사회복지	Y	3.0	-	-	-
이서면	2016.03	사회복지	Y	3.0	1.0	-	-
고산면	2017.07	사회복지	Y	4.0	1.0	-	-
안천면	2017.07	행정	N	4.0	-	-	-

맞춤형 복지팀의 공무원 수에 대한 지표의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팀장을 포함하여 3명을 두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2명을 두고 있었다.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되어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에는 장애가 되고 있다.

가령, 마령면, 장계면, 동계면, 구림면 등의 지역은 맞춤형 복지팀이 팀장을 포함하여 2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 복지 연계, 전문적인 사례관리, 맞춤형 복지 상담, 복지 사각 지대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을 4명까지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 구성에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크다.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팀의 평균 인력 구성은 팀장을 포함하여 약 2.8명으로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최소 3명에 미치지 못한다.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복지 자원은 부족하지만 관할 행정 구역은 매우 넓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맞춤형 복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팀장을 포함하여 맞춤형 복지팀이 2명으로 구성된 지역은 인력을 보강하여 마을 단위 복지 행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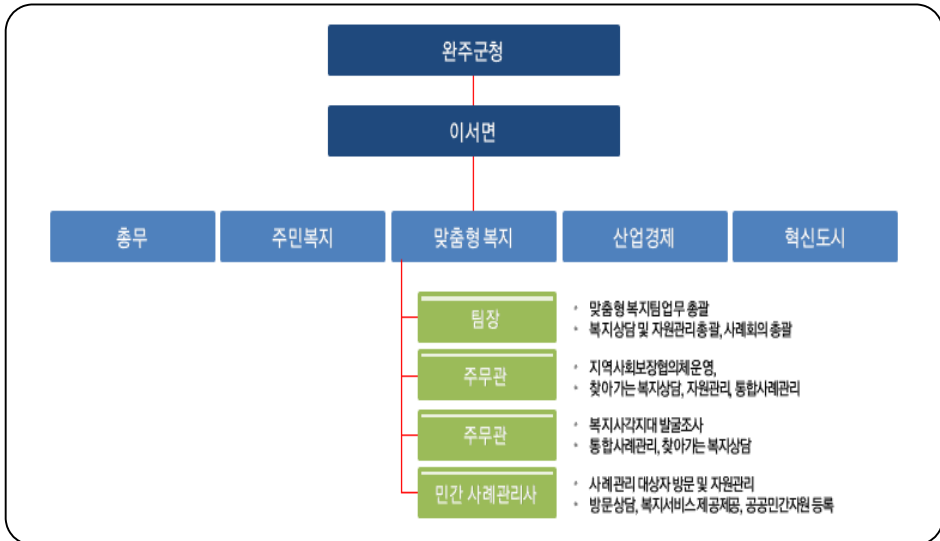
맞춤형 복지팀 인력만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읍·면 지역에서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사례관리사를 순수 국비 예산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문형 복지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의료 취약 계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문 간호사의 별도 채용 및 운영도 필요하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지역은 아직까지 민간 방문 간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이서면 행정 조직은 총무팀, 주민복지팀, 맞춤형 복지팀, 산업경제팀, 그리고 혁신도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서면의 맞춤형 복지팀은 팀장(복지직)을 중심으로 주무관 2명과 민간 사례관리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춤형 복지팀의 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한다. 주무관은 민·관 복지 협의 기구인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복지 상담, 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는데, 민간 사례관리사는 주로 방문형 상담을 통한 자원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 사례관리사로 상담관련 전문가(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읍·면 지역에서 부족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사각 지대 발굴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7-2〉 이서면 복지 전달 체계 구성



이서면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도시 특성과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서면의 농촌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반면, 혁신도시 지역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서면은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복지 자원은 봉동읍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기존 복지 행정팀은 급여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맡았지만 부족하나마 사례관리도 시행했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 이후 전문성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의 이서면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계 업무를 총 4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사회보장협의체보다는 기존 마을 단위에서 활동하던 부녀회 등이 중심이 되어 사각 지대 발굴단을 운영했다(희망지기). 희망지기는 1차적으로 부녀회장이 사는 지역에서 위기 가정이 발견되면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팀으로 연계한다.

〈표 7-7〉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 지대 발굴 체계: 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 발굴대상자

단계	주요 업무	주체	수행 방법
1단계	중점 조사대상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1조 방문조 구성 :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 3+복지플래너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 조사 계획 수립 행복e, 사각 지대 대상자 관리시스템 추출 기초수급자 225세대 382명(16. 4월) 차상위계층 196세대 268명(16. 4월)
2단계	조사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1조 방문조 구성 :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 3+복지플래너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및 조사물품 제작 방문 스티커, 실태 조사표, 홍보 전단지 제작 언론보도, 완두콩 월간지 게재
3단계	발굴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인 1조 방문조 구성 -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 - 이서면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 사각 지대 발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조사 및 전수조사 주관 초기상담 기록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관리 실적 기록 등 현장 방문 조사, 조사표 작성

단계	주요 업무	주체	수행 방법
4단계	발굴조사 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 : 2인 1조 방문조 구성 이서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수행(단순 사례) 급여신청 접수 안부확인 등 단순 서비스 제공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 및 위기 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고위험군→군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자료: 완주군 이서면(2016) 이서면 복지허브화 복지사각 지대 발굴조사계획; 함영진 외(2016) 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연구 재인용

이서면의 대상자별 사각 지대 발굴 절차는 크게 세 단계(전체 주민 대상 전화 조사, 위기 가정 집중 조사, 사각 지대 자원 연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 이서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하여 집중 상담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1차로 선별된 위기 가정을 방문 후 상담하여 현재 처한 위기 상황을 집중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 지역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고위험 위기 가정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처럼 사각 지대 발굴 구조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7-8〉 완주군 이서면 대상별 사각 지대 발굴 체계: 신규 발굴 대상자

단계	주요업무	주체	수행방법
1단계	이서면주민 전체 대상 전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서면의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단체 및 마을 책임자 이서면 마을봉사단체 마을지기 등을 활용하여 전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이서면 소재 약 6000세대,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 내용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 복지 요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2단계	위기 가정 집중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조사에 기초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팀에서 위기 가정 방문 조사 2인 1조 방문조 구성 방문조사는 맞춤형 복지팀 3명과 민간 사례 관리자 1명이 참여하여 조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 및 부녀회장 등의 전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 선별 후 맞춤형 복지팀의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복지 욕구 확인 집중 조사 대상에서 기존 복지 서비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배제
3단계	사각 지대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조사에서 확인된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및 자원연계 : 2인 1조 방문조 구성 이서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연계는 단순 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수행(단순 사례), 급여신청업무, 안부 확인 등 단순 서비스 제공 복합적인 욕구 대상자 및 위기 가구 사례 관리 대상자 의뢰(고위험군→군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100 농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이서면은 복지 수요는 매우 높지만 복지 자원은 열악하여 민간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보완하고 있다. 이서면에 위치한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 자원 봉사 단체와 연계하여 마을 단 위에서 복지사업이 제공되도록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2016년 이서면 민·관 복지 자원 연계 기관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 봉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이서파출소, 축산과학원, 농업과학원,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한국공간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 지역 복지 기관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좋은 사람들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민간사업체에서 이서면 주민들에게 자원 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표 7-9〉 완주군 이서면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 기관

후원처	최초 후원일	구분	
		물품	주기
전주연탄은행	13년	삼계탕 및 선풍기	수시(연 1,000만 원)
연리지	13년	계란(1회 5판)	월 2회(약 10만 원)
마더쿠키	16년	현금지원(2인/각5만 원)	연 8회(10만 원)
Y마트	16년	으뜸상품권백미10포	월 1회
한옥떡갈비	16년	떡갈비(130g)50팩	월 1회(15만 원)
축산과학원	16.9월	현금지원(1회 50만 원)	연 1회(50만 원)
농업과학원	16.6월	현금 및 상품권세탁기, 실버카	연 3회(5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16.4월	상품권 및 현금	연 2회
원예특작과학원	16.9월	현금지원(1회 100만 원)	연 1회
이서세탁소	16.9월	이불, 옷	수시
또봉이통닭	16.11월	통닭(10마리)	월 1회
이서초등학교	16.7월	현금지원(1회 618,090원)	연 1회
지역자활센터	15.2월	현물 지원식료품, 기타	수시
참진하우징	16.7월	벽돌 지원	수시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16.11월	연탄 지원(1회 60만 원)	연 1회
이서교회	16.9월	현물지원(백미, 김)	연 1회
아우디 중산모터스	16.12월	현물지원(난방유, 연탄)	연 1회(1,000만 원)
완두콩	16.3월	현물 지원	수시
농촌진흥청	16.9월	현물 지원	연 1회

후원처	최초 후원일	구분	
		물품	주기
모악산식품	16.3월	현물 지원	수시
따뜻한 한반도	16.3월	연탄 후원	수시
좋은사람들	16.9월	재능 기부	수시
한국공간정보연구원	16.1월	현물 지원	연 1회
이서면 상가번영회	16.12월	현금지원(1회30만 원)	연 1회
이서파출소	16.7월	mou협약	수시

이서면 행복 채움 나눔 냉장고 설치운영

이서면은 누구나 참여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농촌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팀에서 나눔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나눔냉장고는 모든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기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나눔문화공간으로 2017년 1월에 시작했다.

나눔냉장고는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이 주관하고, 이서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식자재 등 자원을 발굴하고 잉여 음식물이 발생하면 마을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은 냉장고 식자재를 정리하고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한다. 음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완주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약을 맺었다.

- 지원 내역: 인적 자원(마을 주민들이 먹거리를 나누기 위해 동참, 1일 50인 이상 이용)
- 지원 물품: 신선식품(고기, 생선, 야채 등), 가공식품(김, 참치, 김치, 햄 등), 공산품(화장품, 옷, 책, 비누, 삼투 등)
 - ※ 불량식품 및 냉장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설치

주요 성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만 이용하지 않고 지역 주민 모두가 활용하여 기부 음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하는 주민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나눔 냉장고가 설치된 장소가 이용자와 참여자가 소통하는 곳이 되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나눔냉장고를 통해 도움을 받은 주민이 또 다시 기부에 동참하는 등 나눔냉장고가 릴레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내년도에 신도심뿐만 아니라 구도심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서면은 복지 수요가 높지만 자원이 부족하여 다양한 민·관 복지 자원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최근 2년 간 전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와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가령, 따라쥬 협동조합, 이서 초등학교는 다른 단체에 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역 연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수행 하였다. 부녀 연합회, 주민자치 위원회, 바르게 살기 위원회 등 자원 봉사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주로 이들기관은 복지 시설과 연계해 봉사 활동을 수행하였고, 연간 자원봉사자 수는 10명에서 15,000명까지 매우 폭 넓게 참여하고 있다.

〈표 7-10〉 최근 2년 간 주민 주도 복지 활동(2015년~2016년간)

구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자치적 소모임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지역 주민 참여 행사	지역 내 타 단체 공동사업	지역연대 사회교육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지역 주민 교육 워크숍	조사 연구	기타 ¹
부녀 연합회	.	.	.	○	.	.	○	.	.	.
주민 자치 위원회	○	○	○	○	.	.	○	.	.	.
바르게 살기 위원회	○	○	.	○	○	.	○	.	.	.
농민회	○	.	.	○	○	.	○	○	.	.
지역 발전 위원회	.	○	○	.	○	○
이서지역아동센터	○	○	.	.	○
체육회
여성 의용 소방대	○	○	○
의용 소방대	.	○	.	○	.	.	○	.	.	.
노인회
삼우중	.	○	○	.	.	.
이서 우체국	.	.	.	○
이서 농업 협동조합	○
하섬원 노인복지센터
여성 자율 방범대	.	○	.	○	.	.	○	.	.	.
따라쥬 협동조합	○	○	○	○	○	.	○	○	.	○
이서 초등학교	○	○	○	○	○	○	○	○	.	.
이서면 생활 개선회	.	.	○	○	.	○

이서면 맞춤형 복지팀 방문 사례 조사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 개편 관련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서면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서면은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민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수지역이다.

이서면은 농촌 지역 맞춤형 복지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이서면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와 함께 '행복채움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너나들이 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위한 김장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행복채움 냉장고 사업
 - : 지역 주민이 음식을 기부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 기부 운동
- 너나들이 꿈터(공부방)
 - : 공공임대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방과 후 공부방 운영(행정의 도움없이 11개 기관 및 단체의 후원을 받아 공간리모델링으로 교육, 돌봄 제공)
-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 : 의료 취약 계층 주민 대상 외과, 한의과 방문 주치의제 실시(주1회),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금연, 금주, 비만 예방 교육 등(체조 교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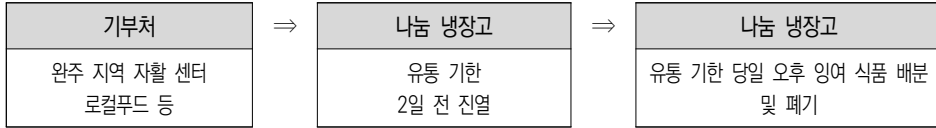
방문개요

- 일시: 2017년 11월 15일
10:00~12:00
- 장소: 이서면사무소
- 참석:
 - 주영환 면장, 이문희 팀장, 허명희 주무관, 장요한 주무관, 전은경 맞춤형 사례관리사
 - 맞춤형 복지팀: 3명(팀장 1명, 팀원 2명) 모두 사회 복지사로 구성



주로 완주군 지역 여러 지역 복지 단체 및 농민 단체가 나눔 냉장고에 식자재나 음식을 기부하고, 이 식품은 나눔냉장고에 유통기간 2일 전까지 진열한 후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는 신선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판매가 어려운 식품을 나눔냉장고에 기부하여 자원을 재생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7-11〉 나눔냉장고 운영 절차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시·군 단위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여 복지 행정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 복지 행정이 시·군 단위에서 기존 복지 급여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방문형 상담과 맞춤형 사례 관리로 업무로 전환되면서 농촌 지역 주민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복지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이 함께 결합되어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민간 복지 부문과 연계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아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여 추진된 읍·면 복지 허브화(맞춤형 복지팀 설치) 대체로 팀장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직원이 방문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맞춤형 복지팀 구성원은 사회 복지 외에 다른 직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맞춤형 복지팀의 팀원이 2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사례 관리 업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하지만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 곳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7-12〉 투입분야 평가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맞춤형 복지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율이 80%에 근접하고 있어 농촌 복지 전달 체계의 행정조직은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 	정량
	1-2. 맞춤형 복지팀 적정인력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의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맞춤형 복지팀을 총괄하는 팀장이 사회복지직렬로 배치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읍·면 지역의 맞춤형 복지팀의 구성이 팀장을 포함하여 대체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2명으로만 구성된 지역이 있어 방문형상담과 사례관리, 민간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정량
	1-3. 맞춤형 복지팀 민간 인력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의 민간인력은 사례관리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의 전문인력을 사례관리 전문요원으로 채용하여 농촌 지역의 복지욕구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상담과 자원연계 진행 ◦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완주군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 특히, 민간사례관리사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를 매뉴얼화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정량

〈표 7-13〉 실적 및 성과분야 평가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실적	2-1.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연계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 관리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중요함 하지만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 관리 건수는 인력과 예산의 영향을 받고 있어 지역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충분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 그리고 복지 자원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사례관리 연계건수가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여전히 사례관리 연계 건수가 적은 상황임 ◦ 사례관리 실적을 중심으로 인력재배치 혹은 사례관리 전문 인력의 채용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정량
	2-2 맞춤형 복지팀 복지 사각 지대 발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 전체의 복지 사각 지대 발굴 건수는 정량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현장 사례에서 확인한 바로는 주로 맞춤형 복지팀의 핵심 업무로 사각 지대 발굴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복지사각 지대 발굴 이후 자원 연계 시 농촌 지역은 충분한 복지자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각 지대 발굴 이후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혹은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이 시급함 	정량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2-3. 맞춤형 복지팀 민간 복지 자원 발굴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복지팀에서 민간 복지 자원의 발굴 건수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이서면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와 맞춤형 복지팀 주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자원을 조직 노력을 경주 ◦ 맞춤형 복지팀의 민간 복지 자원 연계는 기존 복지시설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세탁소, 떡집, 제과점, 이발소 등)을 연계하고 있어 이용 주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정량
성과	3-1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 행정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이후 향상되고 있음 ◦ 기존 행정이 읍면사무소에서 복지 수급자를 기다리던 수동적 행정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어 농촌 지역 주민의 복지행정에 대한 체감도는 향상되고 있음 	정성

맞춤형 복지팀의 사례 관리 연계는 실제로 읍·면 복지 허브화를 추진한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이후 읍·면 지역 주민은 읍·면 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고 오히려 맞춤형 복지팀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이후 민간 복지 자원 연계, 복지 사각 지대의 발굴 등 기존 복지 행정에 찾아 보기 힘든 다양한 우수 사례가 제시되고 있어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이후 농촌 복지 전달 체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농협과 수협 등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대상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아동의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지역 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매우 높다. 농·수협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농협은 노인돌봄과 아동 보육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등 지역의 복지 수요와 공급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된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은 농협의 행복모음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은 크게 행복모음센터와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두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는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사업 중 행복모음센터의 설치 목적을 ‘기존 지역 농협 문화복지센터에 추가로 전문 복지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농촌 지역 복지 사업 전달체계 역할 수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행복버스는 산간 벽지 농촌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장수사진 촬영, 무료법률상담,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해 농촌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사업은 2014년부터 꾸준히 시행되었고, 국비 80%와 함께 시행 기관 20%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응해 방문형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재가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행복 모음 센터는 주로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생활 편의 시설, 행복 모음 카페, 유아 돌봄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버스도 운행하여, 의료 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의 종합적인 보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 모음 센터와 행복 버스 등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사업 수행 주체는 지역 농협이다.

〈표 8-1〉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사업 내용

구분	행복모음센터	행복버스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에 추가로 전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농촌 지역 복지사업 전달체계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간벽지 농촌마을에 직접 찾아가 의료제공 등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농업인 등 소외 계층에 장수사진 촬영, 무료법률상담, 문화예술공연 등을 제공하여 농촌 복지 실현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계속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및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의료 지원 및 장수 사진 촬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생활 편의 시설, 행복 모음 카페, 유아 돌봄 방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지원, 장수 사진 촬영 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농협(사업시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지역농협
사업 추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중앙회 가이드라인→지역 농협 신규 사업 신청→농협 중앙회 사업심사 및 예산 지원→시설 설치 및 사업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제출(시행기관)→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농식품부)→병문 지역 확정 및 의료 지원(시행기관)→사업 시행 결과 보고(시행기관)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지역 복지 사업 전달 체계 개선 도시와 농촌의 문화 복지 격차 해소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중심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문화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 기반 제공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농업인 삶의 질 향상 15년 추진실적 및 16년 시행계획 재구성

〈표 8-2〉 농수협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

구분	주요사업
행복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복지 서비스와 여가 문화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지와 문화에 대한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장수 사진 촬영, 침과 뜸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 ◦ 행복 버스 사업은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까지 총 100여 회를 운영하였고, 전체 87개 사군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의 지역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 서비스 제공
행복나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 및 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센터 ◦ 행복나눔센터는 농어업인이 지역 내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문제(법률, 전자기기 활용, 영농활동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자원의 재능기부 활용
재가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 농협 중앙회는 전국 8개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농촌 방문형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 농협 중앙회는 2020년까지 전국 농협과 축협을 통해 전국에 200곳 이상의 재가복지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

2. 지역 평가 결과¹³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춰 각 사업별 연계기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이용자와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존 복지 인프라로 농촌 지역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지역의 복지 자원만으로는 농촌 지역의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¹³ ‘행복모음센터 등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등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주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에 맞춰 사업 평가를 위한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적 평가를 위한 지표와 질적 평가를 위한 지표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적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의 충실도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수협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려 연계하고 있는 외부 연계기관의 수(정량), 그리고 농·수협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수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계 기관의 적정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용자의 표집 문제 즉,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내용의 측정이 가능한 대리지표를 활용한다.

〈표 8-3〉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수(농수협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한 지역기관 수) ◦ 이용자 수(각 프로그램별 이용자수) ◦ 이용프로그램 개수(운영 중인 프로그램 개수)
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의 적정성(복지욕구에 따른 지역 기관과의 연계) ◦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 정도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농·수협 복지서비스 강화사업 중 전라북도는 지역농협과 함께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영중에 있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사업의 운영개요를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적 지원과 장수사진촬영 등의 복지서비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등을 통한 문화여가확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지원사업은 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업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음으로 장수사진촬영사업은 고령농업인 등에게 장수사진을 통해 평안한 노후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공연사업은 문화예술 소외지역에서 공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전북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사단법인 농촌사랑범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의료서비스 낙후 농촌 지역(도서산간벽지 거주자 등 우선지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농업인 및 농촌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세부사업방법을 보면, 운영은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장수사진 촬영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행복버스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은 주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연계는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진료항목은 일반건강검진 및 내과 등 양방의료와 한방의료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표 8-4〉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법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병원 및 지역거점병원 등과 협약체결(원광대 한방병원, 대자인 병원 등)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60세 이상거주자(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진료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명(일반건강검진 및 내과 등 양방+한방지원 선택진료 가능) ◦ 양방진료 1인 필요경비 30천 원 지원, 한방진료 1인 필요경비 20천 원 지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장수사진을 촬영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를 구현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50명의 농촌

노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사업의 주된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업인 및 농촌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령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운영방법으로는 전문촬영단체와 계약하여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이미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표 8-5〉 장수 사진 촬영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운영방법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농촌 지역 사진촬영이 가능한 전문촬영단체 섭외 및 계약체결을 통한 지원, 이용 및 미용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사진촬영 및 액자제작후 전달 ◦ 지원대상 : 농촌 지역 65세 이상거주자(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은 우선지원)
지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명(수혜인원 1인 진행경비 30천 원 지원) ※ 총 비용 1인 40천 원 중 농협중앙회에서 10천 원 부담

전북 농협은 이외에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형 버스를 임대하여 교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크게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고령자 및 거동 불편 농업인이 행사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의 경우 농업인 대상의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 행사 홍보 및 참여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농업인이 다양한 행사정보에 따라 이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운송 사업은 대형버스(40인승 기준)를 임대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행사장까지 승하차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다. 승하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버스 앞 유리창에 마을별 운행 시간을 부착하여 사전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산간 오지 등 대형 버스의 운행이 어려울 경우를 감안하여 25인승 버스 및 미니 승합차 등도 함께 운행하고 있다.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의 주요 사업 실적은 전북 농협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지원의 경우, 연계 기관으로 원광대학교 한방 병원과 대자인 병원 등 총 2개 종합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업인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장수 사진 촬영은 지역 촬영 업체와 협력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 8-6〉 의료 지원 및 장수 사진 지원 서비스 연계 기관 및 이용자 현황

시군	실시농협	일자	의료지원		장수사진	
			의료기관	인원	촬영장소	인원
익산	금마	4.04	원광대한방병원	147	딘 스튜디오	153
남원	춘향골	4.21	원광대한방병원	150	딘 스튜디오	191
진안	백운	6.21	대자인병원	294	딘 스튜디오	181
군산	대야	7.15	대자인병원	197	딘 스튜디오	139
김제	진봉	8.29	원광대한방병원	206	딘 스튜디오	175
김제	광활	8.30	원광대한방병원	167	딘 스튜디오	135
완주	삼례	9.05	원광대한방병원	201	딘 스튜디오	182
부안	하서	9.12	원광대한방병원	176	딘 스튜디오	151
장수	장수	11.03	-	-	딘 스튜디오	228
부안	부안	11.04	-	-	-	-
익산	서익산	11.07	원광대한방병원	130	딘 스튜디오	112
익산	여산	11.08	원광대한방병원	152	딘 스튜디오	155
전체				1,820		1,802

자료: 농협전북본부(2017) 내부자료

의료 서비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820명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수 사진 촬영 사업은 동일한 기관 동안 총 1,802명의 농업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경우 익산, 남원, 진안, 군산, 김제, 완주, 장수 등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대부분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문화 예술 사업은 평양 예술단의 공연 그리고 가수 공연 등의

여가 문화 공연을 총 4,500명의 농업인이 관람하였다. 또한 기타 사업으로 법률 지원 사업의 경우 약 100명의 농업인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농협의 행복 버스 사업은 총 4분야에 전체 8,222명의 농업인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경우 전술한 관련 보건 의료 및 문화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은 농촌 복지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8-7〉 문화 예술 및 기타 사업 연계 기관과 이용자 현황

시군	실시 농협	일자	문화예술		기타사업		수혜인원 합계
			공연명	인원	추진내용	인원	
익산	금마	4.04	평양예술단	500	-	-	800
남원	춘향골	4.21	평양예술단	700	-	-	1,041
진안	백운	6.21	평양예술단 (10.27)	300	-	-	775
군산	대야	7.15	-	-	-	-	336
김제	진봉	8.29	-	-	-	-	381
김제	광활	8.30	-	-	-	-	302
완주	삼례	9.05	-	-	-	-	383
부안	하서	9.12	-	-	-	-	327
장수	장수	11.03	평양예술단	700	법률구조	100	1,028
부안	부안	11.04	가수공연	2,000	-	-	2,000
익산	서익산	11.07	평양예술단	300	-	-	542
익산	여산	11.08	-	-	-	-	307
전체				4,500		100	8,222

자료: 농협전북본부(2017) 내부자료

3. 시사점

농·수협의 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복지 시설을 해소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로 농촌 지역의

복지 시설이 읍내에 집중되어 있고, 주요 사업도 도시 지역의 복지 프로그램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농촌 지역에 맞는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농·수협의 복지 서비스가 주로 보건 의료와 장수 사진, 문화 여가 활용 지원을 위한 이동 지원 등에 한정되고 있어 보다 다변화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에 제공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역이 한 개 시·군 당 1개 읍·면에 그치고 있어 실제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는 부족한 복지 인프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복지 자원만으로는 농촌 지역의 복잡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연계하여 재가 복지, 장수 사진 제공,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농·수협 복지 서비스의 사업 유형은 주로 보건 의료와 이미용, 장수 사진 등 생활 편의에 맞춰져 있어 현재 다변화되고 있는 농업인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농·수협 복지 서비스의 주요 제공 공간도 복지 욕구는 높지만 복지 시설이 없는 면 단위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일부 읍·면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읍·면 마을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수협 복지서비스가 각 지역에 골고루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표 8-8〉 각 지표별 세부 평가 요약

평가 지표	평가척도	평가내용
지역 자원 과의 연계성	연계 기관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협 복지 서비스 강화의 주된 사업 연계 기관은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는 종합 병원급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다양한 진료과를 두고 있어 복합적인 보건 의료 욕구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수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협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는 각 복지 사업 당 약 2000명 내외에서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 수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농수협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은 주로 사군당 한 개 읍면에 그치고 있어 다수 농촌 지역까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농수협 복지 서비스는 한 개 읍면이 아닌 복지 시설이 부족한 면 단위 중심으로 계획성있게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자 만족도	제공 프로그램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협 복지서비스는 주로 의료서비스와 이미용 서비스, 장수 사진 제공, 이동 편의 서비스,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이 차지하고 있고, 이 같은 서비스는 기존 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이미용 서비스와 장수 사진 제공 등의 서비스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일부 제공하고 있어 중복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복지시설이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사업 중심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용자의 만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협 복지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이용자 만족도의 측정값은 복지 서비스가 전문한 농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만족도를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것보다는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이나 교육 등 농촌의 복지 문제를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회사를 육성하는 것이다. 농촌 공동체 회사를 육성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에 부족한 복지를 공급하고, 복지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3(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29조 제1항(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5조의 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고령화가 심각하여 복지 수요가 매우 높는데 반해 복지 인프라는 취약하여 발생하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목적은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를 육성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지 공동체를 육성하여 농촌 지역에 복지 공급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 조직이 사회 및 복지 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고자 2011년에 도입하였다.

2016년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66개소에 개소 당 2,500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지원하였다. 2015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으로 총 60개를 지원하였고, 농촌 공동체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컨설팅, 역량 강화 매뉴얼 제작, 사업설명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지역 사회를 활성화 농촌 공동체 회사이다.

2014년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13개소를 설립하였고, 2015년 17개소 그리고 2016년 24개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 농촌 공동체 회사를 48개 사회 서비스형으로 지원하였고, 농촌 공동체 회사 66개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52개소에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 9-1〉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4년	· 농촌 공동체 회사 59개소 지원(사회서비스 제공형 13개소) · 농촌형 교통모델 13개 사업지구 지원
2015년	· 농촌 공동체 회사 60개소 지원(사회서비스 제공형 17개소) · 농촌형 교통모델 13개 사업지구 지원
2016년	· 농촌 공동체 회사 62개소 지원(사회서비스 제공형 24개소) · 농촌형 교통모델 18개 사업지구 지원(신규)

전술한 내용처럼 농촌 공동체 회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다. 농촌 공동체 회사 유형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식품 산업형, 도·농 교류형, 그리고 지역개발형으로 나뉜다.

〈표 9-2〉 농촌 공동체 회사의 유형

구분		내 용
사회 서비스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 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 및 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지역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
소득 사업 유형	농식품 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축산물 자원을 활용한 식품 산업 육성(생산, 가공, 유통,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영농지원 및 식품 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혹은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방문 체류 촉진(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 유지보전 사업, 마을 단위 휴양법인, 문화 공방 등
	지역 개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컨설팅과 교육, 생활 여건 개선 및 향토 자원 발굴, 관광 상품 개발 등 농촌 지역 활성화 지원 ·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생활 환경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활동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5) 농촌 공동체 회사 설명 자료

특히,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는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하는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 분야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 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다. 공모에 선정된 회사는 자부담 25%를 포함하여 최대 사업비 5,000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3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9-3〉 농촌 공동체 회사의 유형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8,100	3,000	3,300	3,300	3,300
- 국 고	4,050	1,500	1,650	1,650	1,650
- 지방비	2,025	750	825	825	825
- 자부담	2,025	750	825	825	825
·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센터 운영	405	135	135	135	135

자료: 농식품부(2016)2016년도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한편, 농촌 공동체 회사의 사업 시행 주체는 시장과 군수이고 사업의 시행 방법은 지자체 보조로 추진된다. 농촌 공동체 회사의 사업 추진 절차는 농식품부가 사업 시행 지침을 통보하면 사업을 공모한 이후 지자체의 신청을 거쳐 적격 심사를 실시한 이후 사업자를 심사하여 추진한다.

사업 추진 상황 관리는 지원 대상 업체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하반기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요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공동체 회사가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도록 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표 9-4〉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성과 목표

구분	실적		목표치
	2015년	2016년	
목 표	18	30	48
실 적	17	24	
달 성 도	94.4%	80.0%	
측정산식	연간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원 업체수/목표치		
산출근거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2017년 누적 100개소 지원 2017년: 14개소 지원 개소수(60개소)의 80% 14년 20%, 15년 30%, 16년 50%		

2. 지역 평가 결과¹⁴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라북도 완주군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교육과 문화 환경을 바꾸는

¹⁴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단체 3개를 대상으로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교육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였다. 이웃린 공동체는 2010년 고산면을 거점으로 38개 가정이 농촌 지역 학교 아동 멘토링과 함께 학부모 교육을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이웃린 빵굽터를 만들어 완주 로컬푸드에 납품하여 여성 및 고령농 일자리로 창출하는 등 공동체 자립을 꾀했다. 특히, 이웃린은 사회 서비스 농촌 공동체 회사(교육, 문화, 복지 등)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으로 지원받아 자립했다.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의 주요 사업은 초·중·고 멘토링 교육, 직업 연계 제빵기술 교육, 음악과 토크 콘서트, 지역 아동 센터 무료 간식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미디어 공동체 완두콩 협동조합은 조합원 13명이 참여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 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두콩 협동조합은 지역 문제 해결 방식을 정보 공유와 소통에서 찾는다.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려면 이웃이 하는 일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웃 소식을 공유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완두콩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① 지역 공동체 복원, ② 지역 공동체 마케팅 창구, ③ 유무형 지역 자산 기록 및 보존 전승, ④ 지역 의제 발굴 및 해설 등을 목표로 제시한다.

〈표 9-5〉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주요사업	사업 내용
소식지 대행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간 로컬푸드와 완주 두레농장의 소식지 취재, 편집, 제작 대행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 급식지원센터 소식지 취재 및 편집, 대행계약
영상 제작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석좌프로그램 한국 흥건축학교 '흙집짓기 과정' 영상 제작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공동체 홍보영상 제작 마을어르신 영상편지 제작 추진
출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이 함께 만드는 완주 방과 후 이야기 출간 마을사 및 어르신 생애사 제작 추진 예정
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너티나무 공부방, 고산향교육공동체 청소년 기자학교 진행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Job스런 이야기 진행 완주 다중기능개발 진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기자학교 운영 외 다수

〈그림 9-1〉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표 9-6〉 완두콩 농촌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유형	분야	이름	역할	경력	비고
공익형 (중심사업)	마을 소식지 완두콩	이용규	사업총괄 /취재담당	전 지역일간지 기자(경력 18년) 현 마을 사무장(경력 2년)	
		양근식 외	마을소식담당	현 마을 사무장	사무장 6명 참여
		차남호	칼럼담당	전 노동자신문 기자 / 편집장 '노동인권 이야기' 저자	
		이연실	편집담당	지역일간지 기자(경력 8년)	
수익형 (부대사업)	소식지대행	정현화	사업총괄	전 지역일간지 기자(경력 5년)	완두콩 제작엔 모두 참여
	영상사업	장미경	사업총괄	단편 영화 감독	
	출판사업	안충환	사업총괄	광고 및 출판 기획자(경력 4년)	
		이현경	카툰담당	만화 홍보 기획자 / 만화가	
	교육사업	장혜영	사업총괄	전 지역일간지 기자(경력 10년)	
김병진		교육담당	청소년 신문 배리 지도강사		

〈표 9-7〉 완두콩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연도	내용		운용 인력
2012년	완두콩 제작 / 소식지 대행 / 기자학교 진행		5명
2013년	완두콩	매달 1회 발행	15명
	소식지 대행	완주로컬푸드(매월), 완주두레농장(매월), 도교육청(계간), 공공 학급 급식 센터(계간), 고산향 공동체(격월) 등 제작 대행	
	영상 제작	흙건축 교육 과정 영상 제작, 완주CB공동체 홍보영상 제작	
	출판 사업	2012완주군 방과후백서 출간	
	교육 사업	고산향 언론 학교, 다중 지능 계발 기자 학교, 주민 교육 등	
2014년	협력 사업	기술개발 첫걸음 사업(우석대, 중소기업청 협력사업)	
2015년	홍보물 인쇄	소식지 취약 지역 배포	13명
2016년	기자 교육	소식지 취약 지역 배포	
2017년	영상 제작	지역 공동체 및 기관, 단체 의뢰를 받아 기획, 취재, 원고 작성, 편집 인쇄까지 원스톱으로 소식지 제작 대행	
2017년	출판 사업		

완두콩 협동조합 시골매거진

완두콩시골매거진은 정보에 취약한 취약 계층에게 마을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지역 주민이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매월 정기발행하고 있다. 인쇄물발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PDF로 해당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p>2017년 12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11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10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9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8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7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6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5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4월</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3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2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p>2017년 1월호</p>  <p>PDF 다운 E-BOOK 보기</p>		

에버팜 농촌 공동체 회사는 2015년 완주군 화산면에서 재활용 화물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농촌 복합 문화 공간과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채소 정원(Local food kitchen garden)을 통해 체험, 실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버팜은 완주 지역 특색을 갖춘 로컬푸드 채소 정원을 조성하여 농업에 친근감을 주고 농산물 소비를 증대하여 도·농이 상생하는 커뮤니티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에버팜은 협동조합으로서 취약 계층 아동에게 텃밭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수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한다. 수익의 사회적 환원 방식은 크게 ① 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식사 및 간식 제공, ② 지역 산간 오지 어르신 진지상 차림 봉사, ③ 지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텃밭에서 밥상까지 오르는 요리 교실 무료 교육 등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에버팜 주요 사업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로컬푸드 채소 정원, 감성 텃밭 프로그램, 청년 커뮤니티 공간, 식생활 요리 개발 등이다.

〈표 9-8〉 에버팜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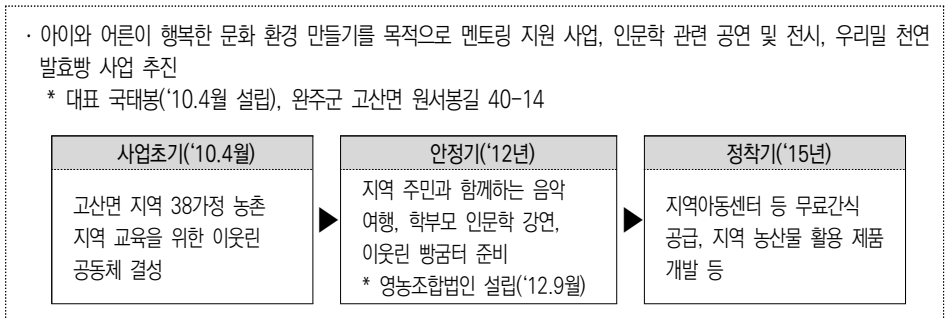
주요사업	사업 내용
로컬푸드 채소 정원	◦ 가드닝 개념을 적용하여 아름답게 디자인된 채소 정원 조성으로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감성텃밭 프로그램	◦ 단순한 농촌 체험에서 벗어나 수확하고 요리하고 맛보는 오감만족의 다양한 체험 진행
청년 커뮤니티 공간	◦ 로컬푸드 채소 정원으로 도농 교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식생활 요리 개발	◦ 식재료의 다양한 활용 방안 개발로 청소년 식습관의 변화 도모

〈표 9-9〉 에버팜 농촌 공동체 회사 운영 방향

주요사업	사업 내용	
지역 주민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농민이 직접 교육하고 지역의 환경과 농민의 경험을 통해 소규모 지역농법 주민주도형 네트워크 구성 로컬푸드 생산지 농가를 방문할 수 있는 로컬농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 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 민이 직접 교육하며 지역의 환경과 농민의 경험을 통해 소규모 지역농법 주민주도형 네트워크 구성 로컬푸드 생산지 농가를 방문할 수 있는 로컬농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주민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체험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상품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로컬 푸드 채소가든 수확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자원을 재활용한 시제품 연구 개발 및 제작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농촌 현장 포럼 교육 참여 	
도농 교류 연계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도농 교류와 연계한 네트워크 마케팅 홍보 블로그 활용과 동시에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 홍보 추진 도시형 잔디 마르쉐 정기적인 참여를 통해 에버팜 협동조합 활동 적극적 홍보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전라북도 완주군의 이웃린 공동체는 농촌 공동체로 자립하기 위해 빵굽기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여성 및 고령농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웃린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에 활용하고 있다. 공동체 수익금의 40%는 교육 공동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공동체 적립금, 나머지 20%는 근로자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농촌축산식품부의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 사업으로 이웃린은 생산에 마케팅과 포장재 지원을 받아 2012년 1,300만원에서 2015년 3억5,0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그림 9-2〉 이웃린 농촌 공동체 회사 주요 사업



완두콩 공동체 회사는 소식지 대행 사업 등 영상 제작과 출판 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언론 학교와 주민 교육 등을 통한 교육 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 68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4년에 총 매출액 1억5,000만 원을 넘어섰고, 순수익만 2,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에버팜 협동조합은 농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 자원 (폐자원 포함)을 활용하여 텃밭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 농촌 공동체 회사이다. 에버팜은 ‘농가의 식탁’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이른바 계절밥상을 제공하면서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3. 시사점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의 사업 목적은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가 도시보다도 심각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족한 복지분야의 공급기반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빵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지역 아동에게 적절한 식자재를 제공해주고 있고, 농가를 리모델링하여 농촌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발간하여 취약지역 주민에게 마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는 이 같은 직접적인 효과이외에도 인구 유출에 따른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통해 복원하는 중장기적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공급기반은 결국 인구의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농촌 공동체 기반의 붕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는 복지서비스의 기반 확대라는 직접적인 효과이외에도 농촌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하는 간접적이면서도 보다 중장기적인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서비스 농촌 공동체 회사의 세부사업별 평가를 정리해보면, 우선 사회서비스제공내용의 경우 지역의 복지수요를 상당한 부분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반영하여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제공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동체회사의 사업 내용은 지역의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업의 대상자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용자가 어느정도 관련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효과는 기대한 만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

진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공동체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개수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급여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 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직접적인 효과이외에도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의 주된 내용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서비스 공동체 회사를 매개로 지역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표 9-10〉 세부 평가

평가 지표	평가척도	평가내용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내용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의 주요사업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대체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업들이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사업인 아동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체험)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현물제공 등으로 제공되고 있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복지공급기간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공동체회사의 간접적인 복지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 다만, 일부 공동체 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이용자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의 일자리창출개수는 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의 일자리는 창출된 일자리 개수보다는 질적 수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물론 공공형이든 시장형이든 일자리 수요가 많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정량적 수의 확대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 일자리야말로 일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공동체회사의 일자리는 창출개수보다는 적정급여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사회서비스형 공동체회사의 일자리를 지속적인 수익형 사업을 통한

130 사회 서비스 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평가 지표	평가척도	평가내용
		안정적인 매출량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를 위한 사업전략 혹은 경영전략도 함께 요구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형 농촌 공동체 회사는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농촌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 노인에게 건강 관리, 학습·사회 활동, 생활 환경 정비, 소득·경제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농촌 노년 장수 생활 문화 정립하는 데 있다.

- 사업 기간: 2005년 ~ 2018년
- 총사업비: 1,213억 원(2016년까지 기투자액: 1,142억 원)
- 사업 규모: 2016년 174개소, 87억 원
- 지원 조건: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시행 주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 지원 대상(수혜자): 농촌 마을
- 사업 내용: 건강관리, 학습·사회 활동, 안전 생활·환경 정비 등
- 사업 추진 체계: 기본 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농업진흥청)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농업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시행(마을) → 사업 결과 보고(시·군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 사업 평가 및 성과 분석(농업진흥청)

건강 관리, 학습·사회 활동, 환경 정비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고령화 대책(문제 해결)을 시범 운영한다. 기존 농촌 생활 자원 지역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과를 고양한다. 장수(longevity)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3R(Responsibility, Recreation, Relaxation) 전략을 추진한다. 즉, 적절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창조적 취미 활동을 즐기며,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생산성(SCP; Safety, Culture, Productivity) 시스템을 고려하여 노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모색한다. 일거리를 희망하는 마을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기술을 소득자원화로 연계하여 일감을 제공하여 보람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여가 활동을 요구하는 마을은 여가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별적으로 지원한다. 건강한 노인, 여성 조직체 등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 활동의 장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지원),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를 근거로 추진한다.

본 사업의 성과 목표는 농촌 주민, 특히 노인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지역 활력화를 목표로 두는 사업이다. 아울러 장수 마을 육성 등 지역사회 개발 전략의 근간은 주민 참여이다. 따라서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의 성과 목표는 농업진흥청이 제시한 건강한 노년 문화 만들기 및 노년 생활 문화의 자조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과 지표는 마을 공동체 활력화, 삶의 질 향상 등 주민 만족도라는 정성 지표와 대상 주민의 참여횟수(참여율)라는 정량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로 농촌진흥청이 2016년에 제시한 농촌 사회 활동 프로그램 참여 횟수 목표는 16.4회이다. 대상자 만족도(건강한 노년 문화 만들기, 노년 생활 문화의 자조적 운영 여건 마련, 마을 공동체 활력화, 삶의 질 향상 등) 그리고 농촌사회활

동프로그램 참여 횟수(회): $\Sigma(\text{영역별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석 횟수} / \text{사업 참여자 수})16.4\text{회}$ 등으로 설정하였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촌 노인이 독립적인 노년 활동의 주체자로 인식하도록 핵가족화, 고령화 등으로 노인·가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한 노인에게 농촌 마을의 자랑거리와 소일거리를 발굴하여 소득과 연계, 농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한다. 노인을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건강은 유지하고 활력 있는 농촌 생활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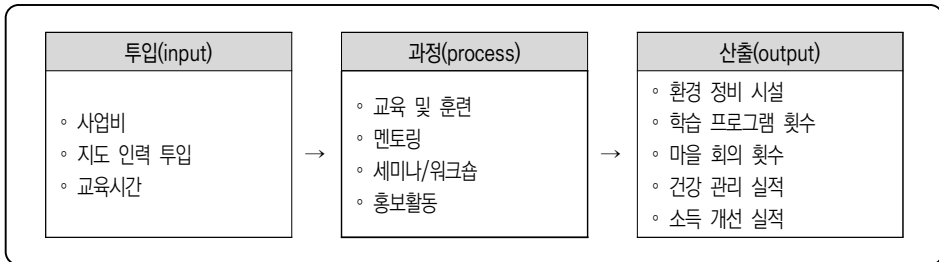
2. 지역 평가 결과¹⁵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은 새로운 장수 문화를 창출하도록(건강 관리와 학습 사회 활동, 환경 정비, 소득 활동)등 4개 영역 실천 활동으로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4개 영역별 평가를 기초로 삶의 질 개선 수준 및 마을 활력도를 평가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농촌 건강 장수 마을의 성과 평가 방식은 논리 모델(Logic Model)에 의거하여 투입-실적-성과 지표로 측정하되, 최종 성과 지표는 4개 영역별 만족도로 평가 한다. 투입 지표는 사업비 집행 외에 교육·훈련, 지도 인력, 상담·자문 등이다.

사업의 실적 지표는 환경 정비 실적, 학습 프로그램 개설 실적, 마을 회의 횟수, 건강 관리 실적, 소득 등이다.

¹⁵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의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그림 10-1〉 성과 지표의 측정(안)



성과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동시 수행하여, 당초 정책 목표인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활력화 정도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한다.

성과 지표 중 양적 평가는 농촌 건강 장수 마을 프로그램의 계량적 통계산출이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평가한다. 건강 관리 증진 활동 횟수, 건강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인원, 학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 마을 환경 개선 실적, 개선된 마을 환경 이용 실적, 소득 및 소득 관련 공동 활동 참여 인원 등으로 평가한다.

성과 지표 중 질적 평가는 성과 목표인 대상자 만족도를 조사 자료와 사례 조사로 측정하되 4개 영역별로 주민의 정서적 만족감과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어 평가한다. 건강 증진 및 규칙적 운동 습관 효과 등 만족도, 공동 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주민 화합 및 참여도 증가, 공동 활동, 시설 활용의 이점, 마을 공동 시설과 환경 청결 유지, 소일거리 마련 및 공동체의식 고취, 마을 활력화 등으로 평가한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담당 공무원 및 마을지도자, 실제 이용 주민에게 면담 하여 측정한다.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 평가에 대한 투입 지표는 마을 지도 인력, 사업비, 교육·훈련 등 투입 자원, 홍보 활동 실적 등 정량 지표로 평가한다.

실적 평가는 주민 건강 증진 활동 횟수 및 프로그램 참여율, 학습 프로그램 횟수 및 분과별 모임 횟수, 마을 환경 개선 실적 및 개선된 마을환경 이용율, 소득 및 소득 관련 공동 활동 참여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성과 평가는 건강 증진 활동 및 공동 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주민 화합, 개선된 시설 활용의 이점,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마을 활력화 등을 관계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 주민에게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표 10-1〉 양적 및 질적 평가 기준

구분	세부 평가 지표	
양적 평가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증진 활동 횟수 ◦ 건강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율
	학습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율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환경 개선 실적 ◦ 개선된 마을 환경 이용율
	소득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연 매출) ◦ 소득관련 공동 활동 참여율
질적 평가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증진, 규칙적 운동 습관 효과 ◦ 공동 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
	학습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 주민 화합, 참여도 증가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활동, 시설 활용의 이점 ◦ 마을 공동 시설과 환경 청결
	소득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일거리 마련 ◦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마을 활력화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2016년 말 현재 사업이 시행 중인 전북 지역 농촌 건강 장수 마을 8개소이다. 8개소는 정읍 매당마을, 남원 하주마을, 김제 궁지호박마을, 완주 대북마을, 무주 서면마을, 무주 외당마을, 순창 평남마을, 순창 세룡마을 등이다.

〈표 10-2〉 전라북도 연도별 추진 현황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개소수	75	3	4	4	5	7	4	9	4	5	7	4	10	6	3
2005~2013	67	3	4	4	4	6	3	8	4	3	7	4	8	6	3
2014년	4				1		1			2					
2015년	2												2		
2016년	2					1		1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총 사업비 11억5,000만 원(개소당 5,0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참고로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은 매년 5,000만 원씩 3년 간 지원되는 사업이었으나 2016년 2년 사업으로 축소되었고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다.

〈표 10-3〉 2016년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시군	계 (천 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합계	400,000	200,000	200,000	-	-
정읍	50,000	25,000	25,000	-	-
남원	50,000	25,000	25,000	-	-
김제	50,000	25,000	25,000	-	-
완주	50,000	25,000	25,000	-	-
무주	50,000	25,000	25,000	-	서면마을
	50,000	25,000	25,000	-	외당마을
순창	50,000	25,000	25,000	-	평남마을
	50,000	25,000	25,000	-	세룡마을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전북 지역 2016년 4개 영역별 사업 집행 결과는 마을별로 편차가 크다. 환경정비 활동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지역은 2곳이며, 소득 활동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반대로 환경 정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강 관리 영역 예산을 매우 적게 투입했다. 학습사회활동은 지역별 편차 없이 예산 집행이 비교적 고르다.

〈표 10-4〉 2016년 영역별 사업비 집행 결과

단위 : 천 원, %

시군	구 분		건강 관리	학습사회 활동	환경 정비	소득 활동
정읍	(3차년도)	50,000	8,860	6,140	-	35,000
	비율	100	17.7	12.3	0	70
남원	(1차년도)	50,000	4,720	5,280	11,000	29,000
	비율	100	9	11	22	58
김제	(3차년도)	50,000	600	9,400	0	40,000
	비율	100	1.2	18.8	0	80
완주	(1차년도)	50,000	3,510	13,130	25,750	7,610
	비율	100	7	26.3	51.5	15.2
무주	(3차년도)서면마을	50,000	10,100	12,000	15,000	7,900
	비율	100	20	24	30	16
	(3차년도)외당마을	50,000	5,000	3,180	7,920	28,900
	비율	100	10	6	16	58
순창	(2차년도)	50,000	10,000	5,000	30,000	5,000
	비율	100	20	10	60	10
	(2차년도)	50,000	10,000	5,000	30,000	5,000
	비율	100	20	10	60	10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지도 인력은 전라북도 각 시·군 지역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1명이 담당 하며 이들이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교육 및 마을회의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은 평균 마을 당 26.6회, 마을 회의는 6.9회로, 투입된 지도 인력은 마을당 평균 교육 및 회의가 33회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투입 관련 홍보 실적은 총 6건이다. 연 2회 홍보 활동을 벌인 마을이 3개이고 나머지 마을은 홍보 실적이 없다.

〈표 10-5〉 2016년 교육 및 마을 회의 추진 실적

사군	횟수	참여 인원		교육①			마을회의②			비고
				횟수	참여 인원		횟수	참여 인원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268	521	1,271	213	384	986	55	167	298	
정읍	41	285	757	37	253	702	4	32	55	
남원	85	5	41	80	2	26	5	3	15	
김제	12	36	98	2	6	16	10	30	82	
완주	47	13	45	42	3	27	5	10	18	
무주	43	23	19	32	15	15	11	8	4	서면
	10	4	4	-	-	-	10	4	4	외당
순창	15	75	158	10	54	100	5	40	60	평남
	15	80	149	10	51	100	5	40	60	세룡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6〉 2016년 사업 홍보 실적

일자	주요 내용	매체명	비고
2016.07.28	창조적 마을 만들기 대표 견학	인터넷	정읍 매당마을
2016.09.08.	장수 문화 교실 운영 운영	전북일보 등 지역신문	정읍 매당마을
2016.03.21	세상 발견 유레카	JTV	김제 궁지마을
2016.06.16	한국인의 밥상	KBS	김제 궁지마을
2016.06.16	안전 가드레일 등 노인 안전 순창	전주일보 등 4개 매체	순창 세룡마을
2016.10.26	장수 고을 순창	전북도민일보	순창 세룡마을
합계	6건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현장 사례 조사의 대상지는 완주군 대북마을이다. 이 마을은 전주에 인접한 근교 지역 마을이지만 주민들이 도시 속의 소외 지역이라 말할 만큼 열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농촌 건강 장수 마을로 지정된 이후 각종 활동으로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 대표 사례이다.

마을 환경은 다음과 같다. 마을 앞 제방을 따라 만경강이 흐르며 마을에 당산 나무 2그루가 있다. 마을 내 65세 미만 주민이 많아 생기가 넘치고 협동심이 좋다. 완주군 봉동읍 평야 지역에 위치하여 쌀, 채소(대파)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마을 공동화단에 매년 봄 꽃을 식재한다.

마을에 전통 문화·유적·유물 등 활용 가능한 자산이 남아 있다. 매년 정월 초 3일에 당산제를 지내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식사 하고 윷놀이를 벌인다. 마을회관 등 주요 공동 작업 시설은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 119.7㎡(남자 경로당 17㎡, 여자 경로당 17㎡, 공동 관리실 56.7㎡, 기타 48㎡)과 절임배추 시설 99㎡(2009년 군청 사업 지원으로 구축)이 있다. 김장철 절임배추를 주문받아 연 평균 약 5,000포기를 판매하고 이를 마을기금으로 사용한다. 연 평균 약 500만원 정도 된다. 마을 휴경지 33㎡에는 콩 및 참깨를 심어 공동 수확 및 사용하고, 마을 정자(1개소, 26.4㎡)는 마을 주민의 휴식처로 사용한다.

〈표 10-7〉 사업 참여 현황

마을명(주소)	사업 참여자수(명)		참여자중 65세 이상(명)	
	남	여	남	여
대북마을 (봉동읍성덕리)	18	26	9	22

〈표 10-8〉 분과별 모임 활동 현황

구분	활동 인원(명)			활동 횟수	역할 분담	비 고
	계	남	여			
풍물활동	15	3	12	20	-	이장님
절임배추 소득사업	35	2	33	10	부녀회	
기체조교실	15	-	15	22	부녀회	

〈표 10-9〉 교육 및 마을회의 추진 실적

계			교 육 ^①			마을회의 ^②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횟수	참여인원	
	남	여		남	여		남	여
47	13	45	42	3	27	5	10	18

〈표 10-10〉 영역별 프로그램 추진실적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 ^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 ^④	남	여	
건강관리	기체조교실	22	15	-	15	330명
	기체조용 건강보조 물품 구입(21개)					
학습 사회활동	풍물교실	20	15	3	12	300명
	풍물용 국악기 구입(20대)					
	마을발전계획 컨설팅(1식)					
환경정비	마을경로당 환경정비					
	마을주변 환경정비					
소득활동	절임배추 소득사업	10	7	2	5	70명
	절임배추 가공장비 구입(14대)					
계		52	37	5	32	700명

해당 사업 이전부터 추진해온 마을 소득 활동인 절임배추 가공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가공 장비를 보충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다. 2016년 절임배추 사업으로 약 2,400만 원 소득을 올려 전년 대비 소득이 10% 향상되었다. 절임배추사업은 매년 동절기마다 주민들이 배추 절임 공동작업장에 자신의 김장용 배추 절임서비스를 의뢰하여, 김장김치를 용이하게 담가먹게 되면서 마을 주민 만족도가 높다. 본 사업으로 노인 및 장년 세대의 태도도 변화되었는데, 풍물교실 등 취미 활동에 참여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노인과 장년 사이에 세대 간 소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0-2〉 완주군 대북마을의 공동체 활동



완주군 대북마을 방문 및 사례 조사

농촌 건강 장수 마을 관련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완주군 대북마을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운영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조사를 시행하였다. 완주군 대북마을은 2015년에 해당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마을 주민의 호응 및 참여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군 대북마을은 총 44호 가구수가 거주한다. 평균 농가 소득은 연간 4,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65세 미만 청장년 주민이 많아 비교적 생기가 넘치는 마을이다.

- 건강 관리 영역에서 기체조 교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총 22회 수행)
- 학습 사회 활동 영역에서 풍물 교실이 20회 진행되었고, 풍물용 국악기 20대를 구입하여 활용하였다.
- 환경정비 영역에서 마을경로당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 쉼터인 정자를 개조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 소득활동 영역에서 매년 동절기 초입을 활용해 절임배추 판매 사업을 벌여 2,0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동네 주민 김장배추를 저가에 절여주면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이 수행되면서 허리가 굽었던 노인들이 기체조활동을 통해 허리가 펴지고,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학습사회활동을 통해 주민 화합이 증진되었으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형성되는 등 사업 만족도가 높다.

방문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30일 17:00~19:30
- 장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및 대북마을 공동 소득활동 작업장
- 참석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최규일 지도사, 대북마을 여성회 총무 및 주민 2명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2016년 전북 지역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참여 현황을 보면 마을 8곳에서 71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 422명이 참여했다. 마을당 평균 89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평균 약 53명이었다.

〈표 10-11〉 2016년 마을별 사업 참여 현황

사군	마을 명	대표자	사업 참여자수(명)		참여자 중 65세 이상(명)	
			남	여	남	여
합 계			327	386	160	262
정읍	매당마을	양봉광	33	34	28	27
남원	하주마을	한충문	26	38	21	37
김제	궁지호박마을	주상현	11	15	10	11
완주	대북마을	이재식	18	26	9	22
무주	서면마을	신동표	151	161	45	84
	외당마을	박종환	26	24	12	15
순창	평남마을	김점옥	24	39	12	29
	세룡마을	신희상	38	49	23	37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실적 지표로 분과별 모임 활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0-12〉 분과별 모임 활동 현황

사군	구분	활동 인원			활동횟수	역할 분담	비고
		계	남	여			
정읍	매당마을 공동체회	12	9	3	15	마을공동작업장 관리 및 운영	
	노인회	52	26	26	50	마을행사, 건강관리	
	장수체조동아리	21	2	19	48	장수체조	주1회
	대동회	97	47	50	4	마을행사 환경정화활동	
	부녀회	25	-	25	66	공동식사, 이웃도우미	주당번제
	청년회	9	9	-	15	제초, 마을청소 등	월 1 회
김제	마을정비	21	10	11	5	노인회	
	공동경작	18	8	10	-	영농회	
완주	풍물활동	15	3	12	20	이장님	
	소득사업 (절임배추)	35	2	33	10	부녀회	
	기체조교실	15	-	15	22	부녀회	
순창(평남)	학습동아리	18	5	13	29	노인회	주1회
순창(세룡)	학습동아리	16	5	11	30	노인회	주1회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실적 지표로서 4개 영역의 활동 실적은 영역별로 마을 한 곳을 제외하고 활동 실적이 고르다.

〈표 10-13〉 4개 영역별 활동 실적: 정읍시 매당마을

단위: 명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콩짜ق 신나는 건강체조교실	12	23	5	18	276
	Fun Fun 웃음치료	6	25	5	20	150
	노인건강식생활	8	30	9	21	240
학습 사회활동	장수문화교실	7	27	9	18	189
	한지공예	4	25	7	18	100
환경정비	왕매실나무식재	1	36	16	20	36
	농촌클린 마을대청소	10	46	21	25	460
	건강장수로 정비	4	10	8	2	40
소득활동	공동재배 관리	6	26	8	18	156
	지역축제(정읍구절초 축제)홍보판매 부스 운영	9	12	7	5	108
	도농교류 수확체험 및 마을장터	2	23	8	15	46
계		69	283	103	180	1,801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4〉 남원 하주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생활건강체조	80	28	2	26	2,240
학습사회활동	치매예방교육	4	28	4	26	112
환경정비						
소득활동						
계		84	56	4	52	2,352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5〉 김제 공지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건강기체조	12	11	3	8	132
학습사회활동	100 세건강한마음축제	1	85	38	47	85
	선진지견학	2	25	8	17	50
환경정비	마을환경정비	5	12	5	7	60
소득활동	물고기잡기체험장	2	80	34	46	160
	작은동물원	2	80	34	46	160
	영농기자재	-	-	-	-	-
계						647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6〉 완주군 대북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기체조교실	22	15	-	15	330명
	기체조용 건강보조 물품구입(21개)					
학습사회활동	풍물교실	20	15	3	12	300명
	풍물용 국악기구입(20대)					
	마을발전계획컨설팅(1식)					
환경정비	마을경로당 환경정비					
	마을주변 환경정비					
소득활동	절임배추 소득사업	10	7	2	5	70명
	절임배추 가공장비구입(14대)					
계		52	37	5	32	700명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7〉 무주 서면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 ④	남	여	
건강관리	건강기구 구입	1	312	151	161	312
	체조교실 운영	20	30	15	15	600
학습 사회활동	주민 역량강화교육 운영	5	30	15	15	600
	주민 화합 마을축제 운영	1	312	151	161	312
	장수마을 선진지 역량강화교육	1	312	151	161	312
홍보활동	마을 홍보책자 제작	1	312	151	161	312
환경정비	주민 안전생활 CCTV 설치	1	312	151	161	312
	물레방아 설치	1	312	151	161	312
컨설팅	전문가컨설팅	1	-	-	-	-
계		32	1872	936	936	3072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8〉 무주 외당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건강기구 구입	1	50	26	24	50
학습사회활동	도시민초청행사	1	50	26	24	50
환경정비	산책로정비	1	50	26	24	50
	마을환경정비	1	50	26	24	50
소득활동	장비 및 원자재구입	1	50	26	24	50
	마을브랜드개발	1	50	26	24	50
전문가컨설팅	전문가컨설팅	1	-	-	-	-
계		7	300	156	144	300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19〉 순창군 세룡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웃음치유	2	18	6	12	
	핑거푸드	1	15	5	10	
학습사회활동	아티초크	2	16	5	11	
	시니어 글쓰기	3	14	5	9	
	향기비누만들기	1	15	4	11	
	다용도함만들기	1	15	6	9	
환경정비	안전가드레일	1	7	2	5	
	돌담정비	1	5	2	3	
	클린농촌운동	1	14	5	9	
소득활동	쌈채소 수확	100	26	2	20	
계		113	145	42	99	16,385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표 10-20〉 순창군 평남마을

분야	추진내용					총인원 ⑤(③×④)
	과정명	횟수③	과정별 참여인원			
			계④	남	여	
건강관리	웃음치유	2	16	4	12	
	핑거푸드	1	17	5	12	
학습사회활동	아티초크	2	15	4	11	
	시니어 글쓰기	3	15	5	10	
	향기비누만들기	1	12	4	8	
	다용도함만들기	1	18	6	12	
환경정비	벽화그리기	1	18	8	10	
	섬진강변가로수심기	1	9	6	3	
	클린농촌운동	1	13	5	8	
소득활동	쌀과자만들기	5	6	1	5	
계		18	139	48	91	2502

자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4개 영역을 통한 마을 활력 증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성과는 기 조사된 보고서와 연차별로 집계되는 전라북도 내부 자료, 그리고 관계자 및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주민의 정서적 만족감과 사회적 영향 등 질적 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했다.

정읍 매당마을은 꾸준한 건강관리, 학습 사회활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연대감이 높아지고 공동체 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주민 공동 학습 참여는 마을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보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이 끝난 후에 마을 경로당에 모여 마을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출가한 아들, 딸들에게 안부전화가 오면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부녀회장이 핸드폰에 교육사진을 올리면, 아들, 딸들이 보고 전화를 해와요
예전에는 혼자서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 교육을 받고 같이 식사도 하니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 참여 주민 인터뷰 내용 (이00)

남원 하주마을은 건강 체조를 함께 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연대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꼭 체조활동과 웃음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마다 20명씩 꼬박꼬박 모여서 같이 하니까 서로 더 친해지고 좋았어요”
- 참여 주민 인터뷰 내용

김제 궁지호박마을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마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주민 소득 활동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 대복마을은 풍물교실 등 취미 및 학습 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이 새롭게 정비된 마을 회관 정자 및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무주 서면마을과 외당마을은 이 사업으로 마을에 관심이 증가하고 사업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순창 세룡마

을과 평남마을은 고령자 친화형 저강도 소득 사업에 만족도가 높으며, 마을 벽화그리기를 통해 마을 입구가 밝아진 점에 만족도가 높다.

이상 마을 8곳 주민 인터뷰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시사점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였던 유사 사업(건강관리실 사업, 농촌 노인 생활 지도 마을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노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지원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전 유사 사업을 육성·지도하면서 얻어진 교훈, 즉 농촌 노인의 다양한 자산과 능력을 활용하고,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 등이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특히 4대 핵심 영역인 건강 관리, 학습 사회 활동, 환경 정비, 소득 활동 등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하면서 농촌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마을을 활력있게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화 된다.

농촌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전달되는 농촌특화형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지역 복지 전달 체계의 주요 당사자 중 하나인 지역 주민 센터 등 복지 전문가와 연계되지 않고 농촌 행정 체계로 운영되는 사업이어서 농촌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데 특별히 연과 관계가 없다.

다만 사업 실행 주체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마을 대표자 사이에 연계가 활발해지고, 사업 목표가 주민 참여를 진작하려는 다양한 행정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주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는 데 성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사업은 농촌 복지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성과는 미약하나 참여 지역에서 농촌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투입 지표 평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지도사 1명이 마을

지도자와 밀착하여 마을별로 교육이 연간 20회가 넘게 실시되거나, 마을회의가 평균 7회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4개 영역 별로 투입의 균형은 마을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실적 지표 평가는 4개 영역별 활동 실적이 마을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었다. 학습 사회 활동 영역은 마을별로 고르게 실적을 내었으나, 환경 정비 영역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활동 영역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성과가 거의 없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향후 지역별 인구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평가는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증진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생활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사회 학습 참여활동 기회가 마련되면서 주민 간 친밀감과 연대감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인 성과이다. 따라서 사업 목표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활력화 증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10-21〉 투입-실적-성과 지표 및 성과 평가 결과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1-1. 지도 인력	활동을 위해 투입된 지도 인력은 사군 센터 지도사 1명이며 마을 대표자 1인과 4-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활동	정량
	1-2. 사업비	영역별 사업비 집행에 있어 마을별 편차가 있음.	정량
	1-3. 투입 자원(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투입된 교육 및 훈련 내용에 마을별로 고른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홍보 실적이 미흡	정량
실적	2-1. 건강 증진 활동 2-2. 건강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건강 증진 활동 횟수가 연평균 20회가 넘는 등 활동이 활발하며 주민 만족도가 높아 성과가 있음.	정량
	2-3. 학습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횟수, 분과별 모임 횟수, 참여 인원 중에서 마을 규모에 비해 참여도가 높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정량
	2-4. 마을환경 개선	마을 환경 개선으로 해당 시설 주민 이용율이 증대하여 성과가 있음.	정량
	2-5. 소득 및 소득관련 활동	소득 활동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마을별 편차가 큼.	정량
	3-1. 건강 증진 활동 및 공동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	건강 증진 활동 및 운동 습관, 공동 운동을 통한 주민 단합이 증가하여 만족도가 높음.	정성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3-2. 학습에 대한 관심 증가, 주민 화합	학습 활동에 기여하여 참여율이 높고 주민 화합에 성과가 크게 나타남.	정성
	3-3. 개선된 시설 활용의 이점	개선된 시설 활용에 지역별 편차가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개선된 환경 및 시설 이용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음.	정성
	3-4.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마을 활력화	공동체 의식 고취 및 마을 활력화 증진에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음.	정성